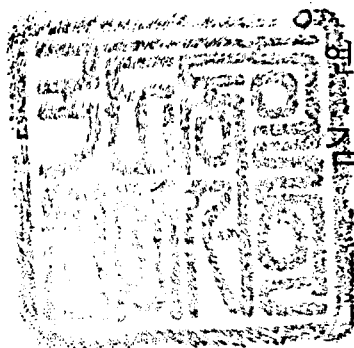


國統調 89-12-147

北韓 社會體系의 理論的 考察

1989



구책임

김경동 (한국사회학회장)

國土統一院

책 을 내 면 서

이 報告書는 7·7 宣言 이후 北韓實相 파악에 대한 國民의 欲求增大에 부응하여 精確한 北韓實相을 國民들에게 提供하고자 위촉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이 報告書에 실린 內容은 北韓社會 形成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 北韓統治體制形成의 社會學的 分析, 北韓社會 理念體系인 主體思想, 그리고 社會主義體制下的 老人問題 등으로서 理論的인 측면에서 體系的으로 집필되었는 바, 北韓實相 파악에 相當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附言하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關聯分野의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차 례

- 北韓 統治體制의 形成과 維持에 관한 社會學的 分析
.....(이은죽)..... 3

- 北韓 마르크스主義 社會科學과 主體思想 (이병혁)..... 53

- 北韓 社會主義 體制와 老人(구자순)..... 109

北韓 統治體制의 形成과

維持에 관한 社會學的 分析

이은죽 (서울대 교수)

<차 례>

- I. 序 論
- II. 理論的 考察
- III. 北韓 權力構造의 形成過程
- IV. 權力構造의 定着과 維持
- V. 結 論

I. 序 論

北韓 社會에 관한 研究에서 政治構造와 政權의 성격 등 統治體制를 주제로 삼은 사례들은 상당히 있다(이상우, 1981). 그러나, 그러한 통치체제가 成立되고 유지되는 社會的 條件과 권력 엘리트의 전략 및 社會的 메커니즘의 特性을 체계적인 理論의 뒷받침을 받아 분석한 보기는 드물다.¹⁾ 더우기, 政治體制와 統治制度는 주로 政治學의 研究對象으로 간주되었지, 社會學的 分析의 초점으로 부각된 일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뜻에서 우선 本 研究은 이같은 주제를 社會學的으로 分析해 보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北韓의 “社會”를 社會學的으로 接近하자면 이 문제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資料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큰 제약이다. 따라서, 資料는 比較的 入手하기 용이하면서 北韓의 社會的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소를 다루려면 統治體制의 分析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현재 알려지고 있는 北韓社會란 歷史上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特徵들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統治體制의 형성 과정과 그 유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社會學的 接近이 필요한 것이다.

社會學的 接近이라고 해도 西洋에서 그동안 제시한 理論的 모형을 적용하는데서 출발하게 되겠지만, 역시 北韓이라는 社會가 지닌 특이한 요소들을 설

1) 비교적 이 방면에서 연구를 시도한 보기는 안병영(1973) 교수의 저작에서 볼 수 있다.

명하자면 그러한 理論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北韓의 歷史的 背景과 韓半島의 전통적 요소에 대한 洞察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요소를 제대로 병합만 할 수 있으면 그 나름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本 論文은 먼저 권력구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指導者와 指導力(leadership)에 대한 社會學的 理論들 중에서 우리의 주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그것을 北韓의 統治體制 형성과 유지 및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특성에 우선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一般 理論에서 다루지 않는 特殊한 條件이나 變數들을 北韓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가려내어 이런 것들이 개재됨으로써 北韓의 권력구조가 成立하고 견지되는 이유와 메커니즘에 대한 理論的 理解에 새로운 요소들이 시사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한 편의 論文에서 시도한다는 것이 무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이 分野에서 이같은 接近이 提示된 바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초보적이거나 그 대강이라도 소개하는 데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여겨 하나의 試論으로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한된 면에다 자료도 二次資料를 원용하는 것이니까 주로 이론적인 쪽에 중점을 두고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II. 理論的 考察

1. 權力構造의 形成

권력이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社會的 決定行事(decision-making)와 關係있는 현상이다. 그 결정행사의 주 대상은 사람들이 社會적으로 살아가는 조직 생활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삶에 필요한 資源의 配分原理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네의 삶의 總體, 즉 歷史를 이룩하는 重要한 事件들에 대하여 내리는 결정을 左右해 주는 힘을 말한다(Mills, 1958). 물론, 하나의 一般 概念으로 쓸 때 권력이란 社會的 行爲를 左右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Olsen, 1970:3). 이는 Max Weber (1947), Talcott Parsons (1966), Robert Dahl (1957) 등이 제시한 概念 규정에 입각한 것인데, 이들은 어떤 行爲 主體가(個人이든 集合體이든) 다른 行爲者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行爲라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能力이 있을 때 이를 권력이라 하였다. 이것이 社會的 水準에서 여러 集團들이 介入하여 決定을 내리는 政治的 過程에 적용되면 政治적 권력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우리의 직접적 관심사이다.

그러한 政治的 權力이 하나의 뚜렷한 짜임새를 가진 일개를 이루면 권력 구조가 생긴 것으로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社會의 成員들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모습에 뚜렷한 질서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권력구조가 인류 歷史上 처음으로 형성된 기원을 따지기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種類의 複合社會의 경우 社會學에서는 크게 두가지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資源의 稀少性” 理論이고 다른 하나는 “組

織的 必然性” 理論이다(Duke, 1976 : 255 - 59).

가. 資源의 희소성 理論

Karl Marx, William Sumner, Weber 등이 제창한 일종의 갈등 理論에 의하면 권력구조의 生成은 社會의 資源들이 희소한 데서 연유한다. 희소성의 基準 自體는 물론 그 社會의 가치나 규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가치있는 자원들이 희소하다면 불가피하게 그 자원들을 얻고자 하는 競爭이 일기 마련이다. 이 競爭過程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힘, 지능, 속도 또는 기타 무엇이든 競爭에서 유리한 자질이나 能力을 動員하여 더 많은 資源과 競爭 自體에서 생기는 보상을 獲得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가장 效率的으로 競爭을 하는 사람들이 相對的으로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는 일종의 選擇(도태)現象이 일어난다.

일단 競爭에서 우세한 位置를 점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얻은 資源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 필요하면 더 獲得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組織的 構造를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권력구조이다. 競爭에서 얻은 자원과 또 그 력으로 앞날에도 계속 차지할 우선권을 確保한 資源에 대하여 이해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집중된 권력의 조직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말이다. 요는, 이와 같은 권력구조가 희소가치 혹은 資源을 둘러싸고 벌인 競爭的 투쟁의 결과로 생성한다는 점과, 이로써 마침내 相對的 剝奪과 힘의 우열이 하나의 틀(類型)로서 제도화된다는 것이 이 理論의 요체이다.

나. 組織的 必然性 理論

Gaetano Mosca, Robert Michels 등의 思想에서 도출한 組織的 必然性 理論은 比較的 미시적인 水準에서 組織體들이 드러내는 特性으로부터 유추한

다. 어떤 社會集團이든지 한번 組織化하게 되면 그 規模는 커지고 集團 內部的 構造와 機能이 自然的으로 분화하는 성향을 띤다는 前提를 한다. 이렇게 되면, 것처럼 분화된 社會的 機能을 조정하고 집단내의 여러 조직 단위들의 活動을 통제하여 相互間的 조절과 集團 全體의 統合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 역할과 구조에 대한 機能的인 要求가 생겨난다. 말하자면 여기에 指導者와 그의 權力構造가 생겨나는 源泉이 있다는 것이다.

이 現象을 다른 角度에서 접근해 보면, 한번 그러한 權力구조가 형성되고 난 뒤에는 조직체나 집단의 다른 成員들은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기 쉽고 또 자신들의 日常的인 業務에 바빠 자연히 모든 중요한 결정을 指導者層에게 내어 맡기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과두제(寡頭制)의 철칙”이라는 원리의 요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조직체는 그 性格上 權力의 집중과 그 權力의 構造化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을 미시적인 社會單位에 적용하면 政治的 權力構造의 기원을 조정과 통제 및 日常的 決定 行事라는 組織的 필연성에서 찾는 理論으로 擴大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Michels의 主張에 따르면, 指導者가 한 번 權力의 지위를 차지한 뒤에는 심리적인 변질을 경험하게 되어 자기를 選出했거나 지지해준 사람들(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奉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더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指導者는 매우 보수적이고 전체적(專制的)이 되어 自身의 지위 유지는 물론 可能하면 그 지위를 자신의 자식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政策이나 프로그램을 제창, 施行하려고 하게 된다. 그리하여 權力構造는 制度化하고 權力을 包含한

社會的 資源의 差等的 配分도 制度化한다(Michels, 1949).

다. 權力的 維持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權力構造가 형성된 다음에는 또 다른 種類의 條件들이 作用하여 權力的 유지여부를 左右하게 된다. 우선, 이런 條件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Duke, 1976 : 259 - 65).

1. 指導者와 權力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데올로기의 선포
2. 效率的인 社會化와 선전
3. 社會統制 메커니즘의 활용
4. 갈등과 욕구불만을 줄이는 제도적 기제
5. 正統성(正統性) 또는 정당성의 확보
6. 반대 이데올로기의 결여
7. 이해 갈등의 의식 저조
8. 엘리트에 의한 組織의 效率性
9. 主要 社會 勢力들간의 단합, 높은 社會統合
10. 엘리트의 높은 適應度
11. 大衆의 엘리트로의 충원
12. 엘리트에 의한 대중 착취의 자발적 절제
13. 社會變動의 저조
14. 國民의 同質性, 價値의 同質性
15. 外部로부터의 威脅
16. 國民의 最低慾求 充足을 위한 적정 水準의 資源
17. 理想的 價値와 실제적 條件 사이의 乖離 有無

18. 大衆의 社會組織의 性格

19. 大衆 사이에 카리스마적 지도자 유무

물론 이밖에도 關聯있는 條件이나 變數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理論的, 歷史的, 經驗的 研究에서 言及한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나열하였다.

간단하게 解説을 덧붙이면, 무엇보다도 권력구조가 새로이 형성되었거나 새로운 권력 혹은 정권이 生成하게 되면, 그것의 正統性(正當性, legitimacy)을 인정받아야 한다. 正統性이란 國民 일반이 용납하고 준수하는 價値와 規範의 체계로써 권력의 行事와 維持를 정당화 해주는 것을 말한다. 正統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우선 대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理論的 체계를 먼저 提示하는게 상례이다. 정통성이 價値와 規範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현상인 만큼 既存의 價値-規範 體系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새로운 權力構造의 형성은, 그 節次가 어떻게 되었든 일단은 무언가 새로우면서 國民의 支持를 誘導할 수 있는 理論 모형을 내어 놓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國民의 규범과 가치와 행위를 잘 감안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미 형성된 社會的 基盤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이 이데올로기란 권력자(들)의 지위를 옹호하고 그들의 엘리트적인 위치를 영속시켜 줄 수 있는 테마와 價値觀과 思想을 선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國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社會化와 宣傳, 즉 프로파간다를 철저히 시행한다. 正統性이란 일차적으로 國民이 自發的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社會化나 프로파간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적절하고 效率的인 社會統制의 메커니즘들을 활용하여 반대하거나 지장을 야

기시키는 勢力, 集團들을 거세하는 전략도 필요하게 된다. 한편, 국민일반의 환심을 사기에 알맞은 새로운 措置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제도적 기제들을 마련함으로써 욕구불만을 줄여 주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일단 正統性을 確保하는 過程에서 반대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거나 소진하고 갈등 의식도 저조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제 한 가지씩 엘리트 자체의 자세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권력의 지속을 꾀하게 된다.

가령, 엘리트 内部의 組織 自體를 정비하고 強化하여 그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일이라든가, 엘리트 자체의 變化에 대한 적응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關係改善이 필수적이다. 우선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착취적인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고, 또 可能하면 대중 가운데서 엘리트의 構成員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대중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이런 사이에 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社會統合을 이룩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역동적 과정을 거치는 사이 競爭이 수그러지고 국민일반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열망을 抑制하면서 엘리트의 우월한 지위를 수용하는 데 기여하는 하나의 우세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 됨으로써 결국 實效있는 권력구조가 군림하는 比較的 安定되고 잘 제도화된 社會가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秩序지위지는 사회는 合意와 同調를 特徵으로 하는 安定된 질서의 社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이렇듯 가장 안정된 권력구조일 수록 國民의 生活水準이 낮은 社會에서 더 자주 發見된다는 점이다. 그 뿐 아니라, 밖에서 볼 때는 권력구조 속에 내재하는 불평등과 착취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두고 권력을 영속시킨 사례들도 많다. 이로 미루

어 보아, 극도로 착취적이고 불평등한 社會體制라도 制度化하고 正當化해주는
규범적 체계의 강한 힘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무리 自源不足으로
가난하고 不平等하고 착취적인 社會에서라도 가치 체계로써 國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처지를 受容하고 正當化하게끔 할 수 있는 한 권력구조는 安定을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여 安定을 얻은 권력구조가 繼續 維持되는 데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考慮할 條件들이 있다. 가령, 社會 內部에서 國民과 價値의 同質性의
정도가 높고 급격한 社會變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중요하다. 물론, 基本的
으로 大衆의 최저 수준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엘리트가 부르짖는
이상적 가치와 국민의 실제 생활의 條件 사이에 深刻하고 두드러진 乖離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條件들도 실은 위에서 言及한 가치 - 규범체
계에 의한 정당화에 따라서는 은폐가 可能한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필요 조
건중의 하나는 외부와의 단절이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그 社會의 안위를 위
협하는 存在를 상징함으로써 社會 內部的 統合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갈
등 理論에서 널리 알려진 명제에 속한다(Simmel, 1956 ; Coser, 1956 ; 1967).
이에 덧붙여, 外部로부터의 폐쇄는 安定된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大衆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점을
檢討의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大衆들 중에도 일정한 불만 세력
이 있어 자기들 사이에 大衆組織을 만들고 社會運動 같은 것을 준비하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카리스마적인 指導者의
存在를 確認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要素는 분명히 권력구조에 대한 위
협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條件들이 갖추어져 있

는 狀況이라면, 오히려 大衆은 支配 엘리트가 조직하여 權力 維持에 利用할 수 있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存在란 現在의 權力構造를 이끄는 指導者 외에는 허용되지도 않고 또 그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너무도 위대하여 감히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려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을 確率이 크다.

要約해서, 權力의 維持를 위한 최소한의 適正 條件을 상정해 본다. 먼저, 權力構造가 고도의 組織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大衆 또는 國民이 자발적으로 受容하고 共有하는 價値와 규범적 기대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大衆이 품은 열망과 그 열망의 성취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 온다. 權力構造의 構成員들 사이에 단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組織의 協同性과 效率性を 제고시켜 주고, 比較的 緩慢한 社會變動은 권력구조가 교란적인 세력의 침입에 適應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상태라면, 大衆이 평화스러움과 복지를 맞볼 수 있고 권력구조는 高度의 正統性を 누릴 수 있으며 권력 엘리트는 고도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問題는 高度의 權力이란 것처럼 항상 안정되고 國民에게 有利한 것으로만 存續하지 않는 성향을 띤다. 너무 권력이 강하면 엘리트가 대중을 못 살게 굴고, 資源 配分이 불공정해지고 사회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그 결과로 國民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통성을 잃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革命같은 것이 일어나 마침내 既存. 엘리트의 몰락이 오게 된다. 엘리트는 한 번 권력을 장악하면 쉽사리 國民의 이해관심과 소망과 고통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利益만 챙기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힘을 과시하는 성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革命과 같은 變革을 자초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問題와 關聯하여 指導者와 指導者的 자질에 관한 생각들을 약간이나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2. 指導者와 指導者的 資質

지금까지 우리는 權力構造와 그 주된 構成員인 엘리트에 관한 論議를 전개해왔다. 그 엘리트의 정점에는 指導者가 있기 마련이므로 이를 다루어 보겠다. 그런데, 社會學에서 指導者의 問題를 다룰 때에는 지도자 개인 그 자체 보다는 지도자적 자질 혹은 지도성, 즉 리더십(leadership)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리더십이라는 현상은 본래 性格上 社會的인 것이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Stogdil, 1974; Burns, 1978). 물론, 그동안 社會學을 비롯하여 政治學, 心理學, 教育學, 經營學, 行政學 등등 많은 社會科學 分科들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 왔다. 따라서 그 概念의 규정도 다양하다.

한 보기로, Stogdil(1974:7-16)은 다음과 같은 정의들을 나열하고 있다. 리더십이란, 1) 집단 과정의 한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란 집단의 變化, 活動, 過程의 초점이 된다. 2) 어쩌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을 더 잘 發揮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個人的 性格, 特質 또는 그 效果로 본다. 3) 사람을 잘 다루어서 마찰없이 협조를 얻어내는 순응 유도 능력 또는 기술이다. 4) 사람들의 行爲에 變化를 가져 오도록 影響力을 미치는 것이다. 5) 사람들의 行爲을 지도, 지휘하는 種類의 행위 내지 行爲을 뜻한다. 6)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강제가 아니라 說得으로 接近하는 것, 즉 설득의 한 형태이다. 7) 集團 成원들 사이의 분화된 권력(힘) 관계이다. 8) 目標 達成과 욕구 충족의 手段이다. 9) 集團 行爲 혹은 相互作用에서 서로 자극하는 과정 및 결과이다. 10) 社會的 相互作用 과정에서 생성하는 지위 및 역할의 분화이다. 11) 相互作用을 시작하고 社會構造의 형성을 자극

하는 構造의 創始者이다.

이들 중 어느 한가지만 보편적 概念規定의 地位를 누릴 수는 없겠고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利用할 수 밖에 없을 줄 안다. 다만, 近者의 研究에서 부각된 것은 리더십이란 어디까지나 關係의인 概念이라는 점이다. 반드시 추종자가 있음으로써만이 지도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目標 達成을 指向한 社會的 役割이며, 相互作用과 影響力을 內包하고, 대개는 集團, 組織體, 地域共同體 또는 國家社會에 어떤 變化를 가져다 주는 結果가 따른다. 사람들의 순응을 유도한다든가 說得力이 있다든가 하는 등 個人의 지도자로서의 특질은 效果的인 指導者가 되는 데에는 매우 重要하지만, 그런 것은 역시 時間과 空間과 狀況에 따라 다를 것이다(Lassey and Fernandez, 1976:10-11).

다만, 우리의 關心事인 北韓의 統治體制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리라고 보는 基本 觀點들은 간추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무엇보다도 우선, 권력과 리더십이라는 두 概念 사이의 관련성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란 일종의 權力關係와 그것이 作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의 두가지 基本要件은 動機와 資源이다. 권력이란 일정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動機에 의해서 動員할 수 있는 資源들(經濟的, 軍事的, 制度的, 機能的 等)을 이용하여 相對方을 동기지움으로써 그의 行動을 左右할 能力을 일컫는다.

따라서, 리더십은 일정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競爭 내지 葛藤 속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또는 기타 資源을 동원하여 추종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충족시키려 할 때 行 事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추종자들 또는 潛在的 추종자들

의 動機, 目標, 所望, 慾求, 價值, 熱望, 期待 같은 것들이 지도자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리더십은 關係的이며, 集合的이며, 目的的이라 한다(Burns, 1978:12-9).

이와 같은 相互作用 過程에서 지도자는 추종자들과 基本的으로 두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는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交換하는 관계를 지도자가 시작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추종자들을 자극하여 相互間에 동기지움의 수준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道德的 向上을 꾀하는 유형이다. 前者에는 輿論 指導者, 관료와 같은 集團 指導者, 立法 指導者, 行政 指導者 등의 보기가 있고, 後者에는 知的 指導者, 改革型 指導者, 革命的 指導者 혹은 영웅과 思想家같은 사례들이 속한다(Burns, 1978:19-20;141-397).

권력과 리더십의 유형은 그것의 絕對性 - 相對性的의 연속선 상에서 區分할 수도 있다. 절대권력이란 권력자 또는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다른 모든 성원들의 동기나 욕구뿐 아니라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권력기반, 즉 資源들을 전반적으로 무시, 유린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권력과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강제하며,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에 반해서, 반대쪽 극단의 유형에서는 지도자가 추종자들의 動機와 慾求에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로의 욕구나 목표가 거의 전적으로 혼용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Burns, 1978:20-21).

물론, 實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극단적 유형보다도 中間的인 것들이 多樣하게 나타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그와 같은 多樣性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는 주요 항목만 言及하기로 한다. 그것은 우선, 지도자 個人的 가정 배경,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하여 社會化的

性格, 거기서 生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욕구와 능력, 야심 그리고 실제 권력에 接近할 기회구조의 성격, 教育背景과 職業的 生涯 經路, 組織力, 動員 능력, 개인적 카리스마와 같은 여러 가지 要因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Stogdill, 1974; Lassey and Fernandez, 1976; Burns, 1978).

이 밖에도 권력구조와 지도자에 대한 理論的 考慮點들은 더 많이 있겠으나, 이 論文의 目的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背景的 考察로 그치고자 한다. 이 제는 그러한 理論的 概觀을 하나의 개념들로 삼았을 때 北韓의 권력구조 형성 과 유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北韓 權力構造의 形成過程

지금의 北韓 統治體制가 生成하는 기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民族이 일제 植民統治로부터 光復을 얻게 된 1945年8月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때의 狀況을 우리는 社會學的으로 하나의 葛藤의 狀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가운데 각파의 지도자 또는 지도자로 자처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새로이 형성될 獨立 政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각축의 마당이 벌어진 셈이다. 이 때로부터 44年 이상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단일한 정치지도자의 절대적 권력구조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社會學的인 이론들의 도움을 받아 설명하려는 것이다.

1. 權力構造 形成의 主要因

光復 直後의 韓半島에 있어서 韓國人들에 의한 권력구조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左右되었다는 歷史的 現實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외세의 우세한 힘을 빌었거나 저들의 힘 때문에 다른 競爭者들이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조건 아래 그 競爭에서 이겨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南北韓에 공통한 것이었다. 김일성의 집권 과정을 우리는 일단 그러한 맥락에서 把握하고 먼저, 몇가지 사실로써 이를 뒷받침해 보기로 한다.²⁾

아직도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김일

2) 이 부분의 자료로는 김갑철(1976); 양호민(1988); 서대숙(1989); 및 Scalapino and Lee(1972) 등을 주로 참조했다.

성은 1932년부터 1941年初까지 中國의 中國人-韓人 유격대 연합인 東北抗日聯軍 휘하의 유격대 지도자의 하나로 南部, 東部 만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하는 일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1년에서 1945年 사이에는 소련으로 도피하여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야전학교에서 빨찌산 훈련을 받다가 후에는 소련 육군 극동군 사령부 밑의 국제부대인 88사단의 장교(소령 또는 대위설이 있음)로 임관되기도 했다고 한다. 日本 敗亡後, 소련 점령군이 평양에 들어 온 1945年 8月 26日보다도 거의 한달 후인 9月 19日에 그와 그의 유격대 간부들은 소련 국제군 88사단과 함께 北韓으로 돌아왔다.

歸國 初부터 그는 우선 너무 젊은데다 국내에서의 활동도 없었고 유격대 활동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中國軍의 일부에서 행한 것이었으며 韓民族 指導者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던 獨立運動의 주요 흐름에서는 비교적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人物이었다. 서대숙 교수(1989:54)의 서술에 따르면,

해방 이후에 南-北韓 모두에서 생겨난 많은 委員會, 政黨 및 자칭 政府 어디에서도 김일성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包含시키고 있는 곳은 없었다. 共產主義者들도 그가 韓人 共產主義 活動에 전혀 參與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었다. 점령당국의 입장에서는 인민들 앞에서 그를 韓國의 愛國者라고 소개하는 데에 대단한 努力이 필요했다.

결국, 소련의 對北韓 占領 政策의 일환으로 北韓의 共產化, 즉 소비에트화를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소련이 필요했던 인물은 자기네의 지시에 잘 순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목상의 우두머리에 불

과했다. 이 基準에 맞아들었고 소련 사람과 접촉이 있는 인물이 김일성이었다는 것이 서교수의 해석이다(1989:56-7). 실상, 소련 특히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韓國人 獨立運動 指導者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北韓에 있었거나 南韓에서 온 공산, 민족 진영의 지도자들은 소련 점령 당국과 협력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 자기네가 훈련도 시켰고 본인이 자진해서 소련 군복까지 입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었고, 일단 선택을 한 뒤에는 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면서 권력 장악의 길에 철저히 도움을 주었다.

사실, 2次大戰 終戰 後 新生國들에서 초기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모두가 식민치하에서 獨立運動을 주도한 民族主義者들이었던 것은 공통된 현상이었다. 물론, 그중에는 共產主義者들도 있었다(Kautsky, 1962). 이러한 背景은 그들이 권력을 놓고 競爭을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점에서 김일성은 한가지 충분 조건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의 지명도나 공로는 그리 두드러진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政權을 장악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소련의 개입이 결정적이었음은 그 뒤의 전개과정이 잘 말해 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동유럽에서와 같은 대학살의 참변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반도의 사정으로 인해 저항세력이 대다수 남한으로 피신을 할 수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 점은, 비록 초기에 소련군에 의한 약간의 암살 사건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후에 김일성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여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구절, 서교수의 말을 빌어 본다(1989:65).

소련 점령당국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저항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단기간에 소비에트화를 달성했다. 그들은 大衆政黨을 조직하고 공

산주의적 改革들을 실시하며 자기들이 樹立한 체제를 지원할 군대를 창건하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김일성을 이용했다. 소련 점령당국의 모든 行政的 지시와 결정은 그를 朝鮮人民과 점령군 사이의 연결고리로 만들면서 그를 통해 수행되었다……소련으로서는 김일성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北韓에 共產主義 체제를 이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를 韓國(北韓)인들의 지도자로 지정하는 데에 성공했고, 그를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 소련 점령군의 이러한 보장은 그가 政治的 競爭者들과 競爭을 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이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모든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그를 “民族的 英雄”, “영명한 지도자”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만주에서의 활동을 獻詩나 노래로 만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부르도록 강요하였고, 춤, 연극, 투쟁기 등으로 구가하였으며, 大學의 이름을 김일성대학으로 명명하는 등, “오늘의 광란적인 김일성 숭배는, 사실은 해방 초기부터 소련군 사령부의 계획에 의하여 개막되었던 것이다”(양호민, 1988:42).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과연 우연히도 소련 점령당국의 눈에 들게 되어 이 용당하면서 權座에 오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는 動機를 가지고 소련군 당국의 괴뢰 노릇을 하면서 저들을 이용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도자의 生成이란 언체나 개인의 자질과 社會的 與件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可能하다고 하겠다. 다만, 당시의 狀況으로는 소련군 휘하에서 그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조선인 유격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가 유독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그가 권력을 장악한 뒤의 行跡으로 미루어 어떤 자질을 갖추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소련군 사령부의 의도와 관련한 다음의 觀

察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당시의 체제에서는 김일성이든 누구든 지도자로 추대만 되면 선출되고, 선출만 되면 어지간히 못난 자가 아닌 한, 벼란간 위대한 수령, 영명한 수장으로 추대되도록 되어 있었다(양호민, 1988: 42에 인용된 임은의 증언).

2. 權力構造 形成의 戰略

소련의 비호 아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물론 競爭者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다. 이른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및 민족세력들이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는 있었다. 이런 狀態에서 김일성과 그의 소련 후원자들은 양면 작전으로 대처해 나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나는 競爭勢力의 유희와 제거이고 다른 하나는 大衆의 지지 기반 확보이다.

競爭者들에 대한 작전은 소위 1945年 8月부터 1946年 1月에 걸친 “순수한 협력”에 의한 무마, 다음 단계에서는 1946年 2月에서 1948年 初까지의 “사이비 연립”이라는 포섭과 협박, 그리고 1948年 2月부터 共產主義 國家의 樹立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9月까지의 단일체제 樹立段階에서의 숙청과 集團指導 체제의 確立 등으로 전개되며, 6.25 戰爭 以後 50年代 후반에 이르는 기간에 김의 일인독재 체제가 굳어지는 경로에는 숙청과 대중동원이 주종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소련식 소비에트화의 주요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난다. 1946年 2月 8日 소련 점령당국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서의 스탈린주의 권력체제의 확립을 보게 된 셈이며 남북의 실질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상 이

것도 아직은 사이비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民族主義 勢力도 包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委員會가 주축이 되어 이른바 “民主改革”을 단행함으로써 인민의 지지 기반을 굳히게 되는데, 그와 병행하여 1946年 8월에 이르러면 <북조선 공산당>이 연안파의 <신민당>을 흡수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이 되어, 공산당 一黨獨裁體制가 완성된다.

그 사이, 공산당 이외의 정당들도 명목상 몇 개가 있었는데 1946年 7月 22일에 組織된 共產黨 산하 단체인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이라는 기구에 흡수되어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7월에는 국경경비대와 정치보위부를 창설하고 8월에는 <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대대를 조직하여 군사 및 치안 면에서 권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대는 1946年 末이 되면 2萬의 兵力을 갖게 된다(김갑철, 1976:93).

한편, 共產黨이 실권을 장악한 政府機構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組織되자 말자 그 해 3月부터 8月頃까지의 짧은 기간에 土地改革法, 勞動法, 농업현물세법, 産業國有化法 公布 等 經濟改革 措處와 選舉法, 男女平等法 같은 社會政治的 改革과 관련된 제도의 變革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들 改革은 김일성과 공산당의 권력 기반 공고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나마 그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46年 3月 5일에 반포한 土地改革法令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 아래 실시되어, 土地改革은 실지로 불과 20여일만에 전격적으로 完了된다. 이에서 규정한 토지 몰수 대상은 親日派, 민족반역자와 종교집단을 포함한 지주이며, 그 실시는 各 道, 郡, 面 人民委員會와 촌락의 피고용자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출된 農村委員會의 責任 아래 이루어졌다. 그 결과, 北

韓의 農地 總 200 萬 정보중 100여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90여만 정보가 반농,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이로써 지주계급은 완전히 청산되고 부농층도 크게 위축되었으며, 被雇傭者, 所作人, 貧農들이 農村의 主人이 되었다(김남식, 1977; 이태욱, 1988).

이 土地改革의 政治的 效果에 대한 김일성 자신의 평가는 매우 의미 깊다(김일성, 1953:53; 김남식, 1977:22-3).

우리黨은 土地改革事業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爭取하고 그들을 당의 주위에 집결시켰다. 人民大衆은 위대한 土地改革事業을 통하여 우리黨을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기들의 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黨은 土地改革行政에서 貧農과 雇農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黨에 흡수하여 農村에 黨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았으며 黨의 성분을 개선하고 당을 일층 확대강화했다.

다음으로 1946年8月10日 〈北朝鮮 臨時 人民委員會〉는 重要산업 國유화 법령을 선포하고 일본과 일본인 개인 및 법인 소유, 그리고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工場, 企業, 鑛山, 發電所, 鐵道, 運輸, 遞信, 銀行, 商業 및 文化機關들을 國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月 22日에는 地下 資源, 山林, 수역의 國유화 법령을 공포하였다. 한편 中小 商工業은 보호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의 정치적 의미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에서 특히 “반제”의 측면을 다룬 것이 된다. 당시 주요 산업의 9할 이상을 일본인이 소유,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풀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의 社會主義化를 지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것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도정에서, 자유민주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중대한 새로운 한 걸음이라 하고 공

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시 인민들의 의식에 대한 배려이며 非共產主義 세력을 무마하려는 조치라 하겠다(김갑철, 1976:24-7; 이태욱, 1988).

그가 1946年6月24日 發布된 勞動法令의 목적에 대해서 言及한 내용에도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物質的 복리를 向上시키며 산업에서의 制國주의적 착취의 잔재를 근절하고 로동계급의 民主主義的 解放을 實現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政治的으로는 그것이 조선민주건설에 그 중심 의의가 있고, “현실에 적합치 않은 공상으로서 로동자와 사무원의 리익만을 요구하고 조선민주건설의 전체적 리익을 불고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로동법령 제정의 기본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로동법은 건설한 민주주의 통일전선사상기초 위에서 제정한”(김일성, 1949:83; 김남식, 1977:28-9)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일전선사상기초”라는 문구이다. 이 또한 일반 인민과 비공산주의 세력의 이익도 고려한다는 과도기적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北朝鮮 臨時 人民委員會>가 공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이는 역시 社會主義 여성관과 가족관에 입각한 조치인데도 기본적으로 民主改革의 일환으로만 부각시킨다. 이 法은 1946年7月20日에 반포하고 그 施行細則을 그 해 9月14日에 公布하였다. 이 法의 目的은 그 전문에서 “장구한 봉건적 인습과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해 무권리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아온 조성여성을 政治, 經濟, 文化, 家庭生活의 不平等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 남자와 같은 노동권리, 동일임금,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 강제적 결혼 금지, 이혼의 자유, 일

부일처제, 매매결혼과 公私娼과 기생제도 금지, 재산상의 동등권과 이혼시의 재산 토지 분배권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당시의 한반도 사회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김남식, 1977:29; 이은죽, 1988:175).

요는 이런 措處들에 의하여 김일성과 그의 후원자, 지지자들은 당시의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 일반 주민 가운데 共產主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달래려 한 것이 틀림없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이 어디에서나 하듯이 農民에 대해서는 土地改革으로 일단 토지를 분배할 뿐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農民, 그중에도 가장 下層에서 과거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直接 土地改革의 責任을 지도록 함으로써 기층민의 울분을 달래주고 한과 응어리를 풀어 주어 자기네 편으로 끌어 들이고자 하였다. 물론, 후에는 土地도 集團化의 대상이 되고 말지만, 초기에는 토지 무상분배라는 미끼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산업국유화도 같은 맥락에서 日帝下 日人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착취당한 經驗이 있는 근로계층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분풀이가 없었을 것이다. 勞動法과 男女平等法은 이러한 구체적 적대대상은 없지만 근로계층과 여성을 포섭하는 데에는 적격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와 關聯하여 주목할 것은 이런 改革 過程에서 改革에 반대하고 저항할 세력인 일본인과 한인 지주, 資本家 등은 대다수가 핍박을 피하여 남쪽으로 떠나 버렸기 때문에 改革은 더 순조롭게 저항이 적은 가운데 진행되었을 것이다. 물론 일부 저항한 사람들은 제거당하는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IV. 權力構造의 定着과 維持

1. 權力構造의 定着 過程

政治權力이 하나의 構造的 틀로 組織化되는 양상은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北韓에서는 초기부터 소련의 북한 공산화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위 소비에트화라는 모형이 전형이 된 셈이다. 이 모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하의 동유럽에서 採擇한 것인데, 그 전략은 3段階를 거쳐 共產黨 獨裁體制를 이룩하는 것이다 (Seton-Watson, 1966). 第1段階는 여러 勢力들이 공존하면서 소련을 비방하는 것 외에는 言論自由까지 허용하는 “순수한 협력” 혹은 “순수 연합” 단계이다. 第2段階는 共產黨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명목상 연립을 표방하는 “사이비 연립” 시기이고, 마지막 第3段階에 이르면 공산당 일원 정권(monolithic regime)이 확립되어 단일 위계서열, 단일 중앙집권적 규율, 단일 조직체를 가진 공산당 일당 지배하의 통일전선만이 존재하게 된다.

北韓도 이러한 유형을 대체로 답습하였다. 이미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光復 後 約 6個月 동안은 기존의 競爭的 政治, 社會 團體들을 망라하는 연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김일성은 표면상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등장하지 못한 채 소련 점령군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소비에트화를 충실히 이 행한다(김갑철, 1976; 양호민, 1988; 서대숙, 1989; Scalapino and Lee, 1972).

먼저, 김은 黨을 장악하는 일에 착수하여, 1945年 10月 10日 - 13日 극비리에 開催된 朝鮮 共產黨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아직 黨 지도부에 參與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자세로 강령적 연설을 하였다. 이

때만 해도 黨 中央은 서울에 있었다. 그뒤 2個月 남짓한 기간에 그는 여러 파벌들을 포용하는 조건으로 소련군사령부가 추진한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를 성취하고, 12月 17日 - 18日에 平壤에서 열린 第3次 擴大 執行 委員會에서 黨 責任秘書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 그는 이데올로기, 組織, 規律面에서 지배권을 차지한 셈이다. 그리고 競爭者들의 숙청 작업이 시작되고, 어느 새 당의 명칭도 <북조선 공산당>으로 바뀌었다.³⁾

다음은 政府 組織을 장악하는 일이다. 김일성이 당권을 일단 잡은 뒤 불과 두달만인 1946年 2月에 앞에서 밝힌대로 소련 군정 당국이 역시 극비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급조하고 김을 委員長에 추대케 하였다. 이는 다른 정당, 社會團體들을 망라한 사이비 연합의 정권기관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주축이 되어 위에서 열거한 民主改革들을 실현하였다. 이때, 소련 당국과 김이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당의 초기 강령에서조차 그런 용어를 회피하였던 점도 시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共產主義가 대중에게 인기가 아직 없었고, 소수파 공산당의 권력이 취약했으며, 非共產主義 多數 勢力의 반항이 불안하였고, 통일전선 내의 非共產主義者들을 회유할 필요 등이었다(양호민, 1988 : 46). 심지어, 그는 후일, “우리가 해방 직후에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떠들었다면... 인민들은 우리의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실토를 했다(양호민, 1988 : 47; 김일성, 1960 : 258).

이러한 改革을 성취한 共產黨은 다음 단계의 정권 형태로 “임시”를 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한다. 이것이 1947年 2月이다. 비록 형식적이긴 하나 선거 절차를 밟은 구성이었다. 여기서, 정권의 제 1 단계였던 임시 인민위

3) 북조선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1947년 4월 17일이라고 한다 (양호민, 1988 : 103, 주 31 ; <조선 중앙 연감>, 1949 : 715).

원회는 “勞動 階級이 영도하는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에 입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이었고, 제 2 단계의 인민위원회는 북한에서는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그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社會主義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48年9월에 출범한 “공화국 정권”이 제 3 단계로서, “첫날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政治, 經濟, 文化事業, 分野의 모든 革命課業을 빛나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양호민, 1988: 46-7). 이리하여 北韓의 권력구조의 골간인 당과 정부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김일성이 1948年9月9日 최고 인민회의에서 창건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내각 수상으로 승인됨으로써 권력구조의 정점을 독차지하게 된다.

權力構造의 조성에서 軍과 警察이라는 基盤을 장악하는 것은 기본 요건이다. 이 점에서도 김일성은 초기부터 소련 점령 당국의 도움으로 군대 창설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반대에 직면한 그는 자신의 과거 빨찌산 동료들을 이용하게 된다. 우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던 연안파의 군대는 中國에서 돌아 올 때에 이미 소련군에 의하여 무장해체 당했다. 김은 귀국 직후부터 보안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政府樹立도 되기 7個月 前인 1948年2月8日에 <조선 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건될 때까지 군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자리는 그의 빨찌산 동지들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서대숙, 1989: 90-2).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 주석이 되어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憲法 第93條)하게 되었다(이상우, 1988: 16).

여기까지는 대체로 소련군의 철저한 비호와 支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소련군의 철수가 이루어진 때와 인민

군 창건과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철군 후에도 주요 소련군 장교들이 남아 김의 권력기반 정착을 도왔다. 그 뒤부터 김일성은 스탈린식 개인 독재체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 조처들을 추진한다. 그 이후의 권력구조 유지를 위한 전략과 거기에 이용한 機制들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자세한 서술을 피하고 앞서 이론적 考察에서 제시한 項目들을 中心으로 要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2. 權力構造 維持의 戰略과 機制

가. 競爭者의 除去

김일성은 정권을 장악한 뒤 무력에 의한 南韓의 共產化를 실현코자 6.25 戰爭을 도발하지만 失敗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競爭者들을 피의 숙청으로써 제거하게 된다.(양호민, 1988:49-63; 극동문제연구소, 1980:157-66). 숙청은 크게 네단계로 이루어지며, 김이 그 과정에서 의존하는 세력은 자신의 빨찌산파였다.

제 1 단계에는 6.25 休戰 後 그 責任을 전가하는 명목으로 소련파, 연안파 및 국내파와 제휴하여 남로당파를 소탕했다. 제 2 단계는 국내파와 동맹하여 소련파(1953-6)와 연안파(1956-8)를 차례로 숙청하였다. 제 3 단계(1953-70)에 서 국내파를 제거하는 데에는 自派의 힘으로 가능했고, 제 4 단계(1969-)에는 자기의 빨찌산파 내의 비판세력을 숙청하였다.

물론 이것은 냉정한 권력 투쟁이지만 김일성은 자신이 권력 유지를 위한 권력 쟁탈전을 벌인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의 정통성을 내걸고 당내의 論爭을 거쳐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

오를 범한 이들은 “우익적 편향”, “좌익적 기회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의 낙인이 찍히고, 승리한 종파는 북한의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과학적인 당노선을 확립한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군림하는데, 이것은 共產主義 運動圈 내에서의 권력 투쟁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양호민, 1988: 40).

나. 權力構造를 正當化하는 이데올로기

단적으로, 북한의 共產黨 政權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생성된 소련의 위성 정권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정권이 초기에 採擇한 이데올로기는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차용이었다. 우선, 조선노동당 규약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있다(극동문제연구소, 1974: 219-20; 이용필 외, 1988: 17).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수정주의·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공산주의 및 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그러나, 1970年代 後半, 1980年代 初에 이르면, 김일성주의 또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르다는 점,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최완규, 1987). 어쨌든 건국 초기에는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독자적인 理諭을 가질 상황이 되지 못한 처지에서 그것을 받아 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

것은 형식상으로만 마르크스-레닌주의이지 북한이 채용한 理念은 스탈린주의라고 할 수 있다(양호민, 1976, 1988; 김남식, 1977). 그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로만이 아니라 具體的인 시책의 지침으로서 볼 때 더욱 뚜렷하다. 그 내용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중공업 우선 정책,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農業의 強制的 集團化, 全工業의 國有化, 공산당 지도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민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유일지도자의 신격화와 그에 대한 충성심의 제도화이다.

실지로, 北韓政權은 6.25 戰爭의 休戰 直後인 1953年8月부터 1958年 사이에 農業의 集團化와 都市에서의 手工業 및 資本主義的 商工業의 協同化를 이룩하는 소위 社會主義 改革을 공개리에 完成한다. 이것은 광복 직후의 일련의 民主改革과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를 공공연히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전후의 어려운 經濟事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김남식, 1977). 그러나, 이러한 社會主義 改革을 包含해서 김일성 독재 체제의 정착 과정에는 갖가지 시행착오와 공포정치가 따랐다. 그러므로, 이를 人民 大衆이 쉽사리 수용할 수 있었을 지가 문제될 법도 하다. 北韓에 있어서 主體思想의 대두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고성준, 1989).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김일성이 구축한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理念으로서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름으로 당시의 北韓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理念體系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조성된 것이라는 풀이이다. 그 狀況이란 權力構造 정착을 위한 競爭者들의 除去의 必要性, 戰爭의 失敗를 은폐, 책임전가할 必要性, 戰爭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부흥할 必要性, 소련의 스탈린 사후의 수정주의의 대두에 대처할 必要性, 中蘇間의 대결로 인한 國際共產主義의 변질에 대처할 필

요성, 中蘇對決로 생긴 北韓의 對中蘇 關係의 難關을 해소할 필요성, 여기에 인민을 效率的으로 동원할 필요성에다 자신의 個人崇拜 強化의 필요성 등이 헝꺼번에 들이닥친 형국이었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主體思想의 展開過程과 그 내용을 서술할 필요는 없다. 실은,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이나 심지어 원전들이 대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論文의 의도상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 체계가 개발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써 김일성 권력구조의 정통성을 정당화하려고 해 왔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족할듯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김일성의 신격화의 경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의 것인데다, 이제는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권력을 승계하는 理想的 바탕으로 삼으려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하고 人民에게 주입하려고 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일이다.

다. 總體的 社會化와 宣傳

北韓과 같은 유일체제를 갖춘 社會에서 社會化의 核은 政治社會化이다. 社會化의 다른 측면들은 여기에 부수적인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家族을 비롯하여 公式, 非公式 教育機關은 물론, 각종 公式, 非公式 集團과 組織體, 모든 大衆 通信 媒體, 出版物과 宣傳物들은 전부가 하나 같이 이 政治社會化의 수단으로 동원, 이용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총체적 사회화요 프로퍼간다이다(고영복, 1977). 물론 그 선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에 따라, 또 정권의 특정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제와 지도자의 정통성을 정당화 해주고, 그때 그때 필요한 과업에 人民을 동원하는 데 주안이 있는 것이다.

우선, 그 한 예로, 社會主義 憲法 第2條에는 北韓이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會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라고 하여, 전체인민의 사상적 통일이 국가의 성립 기반의 하나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사상적 통일이란 곧 社會化의 目的이며, 하나의 理念만이 용납됨을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다 (고영복, 1977 : 233). 그리고 그 사상교육 사업은 바로 “革命的 正統性的의 確立, 革命的 一體성의 樹立, 革命的 統合機能의 형성을 도모”하는 노동당의 사상 정책에 의하여 左右된다(변진홍, 정천구, 1988 : 173). 그리고 김일성의 유일지배 체제가 확립되면서 政治社會化의 內容과 方法은 주체사상으로 일원화된다.

가령, 1974年2월에 하달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중 네번째는 김일성의 革命思想, 主體思想을 信念으로 삼고 그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하며, 그의 교시를 자(尺)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며, 그의 思想·指示대로만 思考하고 행동하여야 하고, 그의 勞作과 교시를 깊이 研究·체득하며, 그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매일 2時間 以上 학습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 : 175 ; 정천구, 1988:173-4). 여기에 1987年8月18日字 <로동신문> 사설에서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의 사상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구절을 그대로 소개한다.

주체사상 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교양이며 우리 당에 있어서는 주체사상 교양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교양이 있을 수 없다. 당원들과 각 근로자들에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원리 교양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 선전에서 기본은 사상리론의 위대성 선전이며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 원리에 원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단순한 社會化와 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經濟, 軍事, 體制建設에 인민의 에너지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行政的, 物質的 유인에 의존하지 않고 “政治事業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 방법”임을 강조하고(도홍렬, 1987:151), 김일성은 이른바 “군중로선에 의거한 사업방법, 다시말하여 政治事業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꼭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일성, 1960:167; 정천구, 1988:175).

社會化의 기제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學校, 集團生活 등 모든 組織的 맥락을 동원·이용한다. 北韓의 憲法은 가정을 “社會의 세포”로 공식 규정하고 가정의 革命化를 내세워 政治社會의 基礎 單位로 삼고 있다. 어린이는 또 일찍부터 탁아소, 유치원 등에 수용하는 것을 憲法에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사회주의교육 체제>(1977) 등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영복, 1977; 도홍렬, 1977; 최흥기, 1977; Yang, 1983; 이온죽, 1988).

사상교육은 정규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되는데, 적어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의무교육 기간 10년은 물론, 유치원, 탁아소까지 합하면 공식적으로 십여년의 아동 및 청소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뿐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어릴때부터 가입하여 집단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조직체들이 무수하다. 각급 學校의 소년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社勞靑), 조선직업동맹(聯盟), 조선농업근로자동맹(農勤盟), 조선민주주의 여성동맹(女盟) 등이 주요 단체들이고, 그 외에도 言論, 文化, 藝術, 法律, 農工, 技術, 科學, 國際, 심지어 종교와 학생운동 단체같은 것들이 실상은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

사상교육의 일환을 담당한다(고영복, 1977; 박용현, 1977; 이중, 1987; 이
은죽, 1988; 도홍렬, 1977).

여기에는 자세한 해설 대신에 몇가지 인용만 하겠다.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에서 마땅히 학생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로 되어야
합니다(김일성 저작 선집, 6; 이중, 1987:316).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통하여 누구나 다 조직규율을 지키고 집단
주의 정신을 배양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
명적 교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상을 단련해 나가며 혁명화·로동계급화되어
나간다(북한사회과학원, 1973:1045; 이중, 1987:319).

은 사회를 수령님의 사상으로만 무장하여 김일성 사상대로 일하고 생활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사업이다... 이 무거운 역사적 과
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외 유력한 무기인 언론 출판이 수
령님의 교시대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다(<로동신문>, 1974.7.16; 이상두,
1979:121).

출판보도물의 사명은 “당과 수령의 위대한 선전에 중점을 두며 당과 수
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고 광
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수준에 특색있는 출판물을 만드는 것”
이다(김영주, 1987:361).

문예총(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이룩
된 혁명 문학 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며 그이의 주체적인 문예사상
과 그 구현인 우리 당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사명
으로 한다(북한연구소, 1983:1081; 정창범, 1987:378).

김일성 동지의 문예리론은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때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 나라 인민과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이다 (사회과학연구소, 1975 : 7 ; 정창범, 1987 : 381).

社會化와 關聯하여 한가지만 사족을 붙인다면, 北韓의 社會化, 특히 정치교화는 철저하게 당의 지도 아래 김일성(그리고 근자에는 김정일)의 신격화 또는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데 총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시범, 모범, 숭선수범의 원칙과 집단주의 원칙과 동조성 속의 자주적 창의성을 강조하는 원칙에 따라 일생동안 지속한다(고영복, 1977). 엄청난 總體的, 全體主義的 社會化라 하겠다.

라. 住民의 統制와 動員

規範이나 理念의 내면화는 사회화나 교화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물론, 教育이 가장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效果를 가져 오겠지만, 일상적으로 사회화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여기에 일상적인 社會的 統制와 제재(sanction)가 추가되면 더욱 效果的이다(김경동, 1985). 北韓 當局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사회화와 동시에 주민의 일상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동원하는 전략을 이용한다.

社會統制는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 통제가 있는데, 여기서 공식적 통제란 각종 組織體의 기제로써 人民의 일상적 行動을 統制하고 감시하는 것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탈의 통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당과 국가에 의한 통제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쓴다. 이것은 주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띤 社會에서 發見되는 유형이다(Friedrich and Brezezinsky,

1965). 그리고 비공식 통제는 비교적 조직화되지 않은 집합 단위나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김정동, 1985).

北韓은 우선 黨과 政府의 이원적 조직을 모두 이용하여 住民을 組織化하고 이를 住民 統制와 동원에 활용한다. 이때, 동원과 통제의 기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채널이 이용되고, 統制의 기제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로동당에는 中央에서 各 地域別 조직이 당 세포를 최하위 단위로 하여 住民에게 이르고, 黨 軍事部는 노동적위대 조직을 직장, 부락 단위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당 외곽 단체로서 이미 언급한 사로청(그산하의 붉은청년근위대, 소년단), 직맹, 농근맹, 여맹 등이 있다. 특기할 것은 당검열위원회라는 것이 中央에서 각 지역 단위에까지 조직되어 있어 당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한편, 政府機構도 人民委員會 組織과 社會安全部 組織이 洞, 里 單位까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역시 감시기능을 하는 국가정치보위부가 병설되어 있다(이석호, 1988; 이상우, 1976; 도홍렬, 1977).

일종의 半公式的 統制 手段으로 北韓은 1964年부터 1970年 사이에 住民 登錄事業을 하면서 住民의 성분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핵심계층>, <기본계층> (동원계층) 및 <적대계층> (북잡군중)의 3대계층과 51개 세분된 부류를 두어 반체제, 반당, 반혁명, 반동 세력을 감시, 색출하는 대중동원, 통제 장치로 삼았다

(북한연구소, 1983:312-3; 김채운, 1977; 도홍렬, 1977; 안병영, 1977; 이석호, 1987). 다음으로 역시 반은 공식적인 조직으로 좀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지역별 洞人民委員會 아래의 인민반이 행정의 최하 부분단위이면서 주민 통제에 이용되었고, 1958년에 출발한 5호담당제는 전세대를 5호씩 나누어

열성당원 1인을 배치하고 일체의 가정생활까지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을 통제할 조직이다(도홍렬, 1977).

그밖에 生活上의 統制方法으로는 직업 선택의 규제, 특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도 및 성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과 職業을 배정하다시피 하는 接近, 그리고 거주 이전과 여행의 통제가 있다. 經濟的으로도 衣食住 問題를 해결 하면서 계층과 성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식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친리마 운동>을 대표로 하는 각종 동원체제도 통제의 기제로 활용된다. 물론, 여기 에다 일정한 폭력적 통제를 활용한다(도홍렬, 1977).

마. 誘因體制의 性格

社會化와 統制, 동원도 일정한 誘因을 제공했을 때 더 效率的이다. 人間의 行動을 유발시키는 데 제공되는 誘因의 種類에는 強制的, 功利的, 規範的 誘인이 있을 수 있는데(Etzioni, 1961; 김경동, 1985).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사상교화에 의한 규범적 유인을 활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政治的 숙청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폭력(테러)과 같은 잔인한 강제와 위에서 살펴본 經濟, 住居, 職業 等の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써 유인을 삼기도 한다.

功利的 誘인이란 주로 物質的인 것인데, 北韓에서 物質的인 보상을 노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理念에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근자에는 工業分野에서 일종의 독립 채산제, 農業部門에서는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生産 增大, 物資 節約 등으로 企業과 農事 管理의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方法을 採擇하기 시작하였다(이석호, 1988). 심지어 최근에는 터발 경작을 허용하고 1984年 末부터는 도시지역에 <장마당>이라는 장터가 개설되어 食糧, 酒類,

담배 등을 제외하고는 物品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게 개방하였으며, 일부 개인 부업도 허락하여 平壤 市內에 선술집이 등장하기도 하였다(김영규, 1989).

그런데 북한에서 자주 활용하는 誘因으로 각종 상훈제도가 있다. 노력동원의 한 방편으로 개인, 작업반, 직장, 기업소, 협동 농장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갖가지 훈장, 메달, 상, 영웅칭호 등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런 것이 남발되어 그 가치가 경감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 승진, 휴가 같은 실질적 보상이 따를 수도 있지만, 이 포상제도에는 항상 정치적 고려가 수반한다는 것이 특색이다(이석호, 1988). 이렇게 보면, 이 제도는 규범성, 공리성, 강제성 모두를 약간씩 띠는 것이다.

마. 엘리트의 充員

엘리트의 충원은 권력구조의 유지에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지도자를 核心으로 해서 과두적 권력구조를 조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지위에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國民의 최소한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갖춘 이들을 엘리트층으로 동원해야 한다. 셋째는 일반주민들 가운데서 일부를 엘리트의 위치로 끌어 들임으로써 엘리트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일반 國民의 환심을 살 수 있으며 충성심을 유발하는 誘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권력구조 성립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침한다. 가령, 첫번째 유형은 革命 初期에, 두번째 것은 권력구조 관리기에, 그리고 세번째는 전 시기에 큰 비중을 갖는다(Beck, 1973).

北韓에서도 대략 이러한 일반 유형이 적용되는데, 오랜 숙청과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김일성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친인척과 빨찌산 동료들 및 그 자녀들을 黨의 要職과 政府 高位職에 차례로 충원하여 일종의 거대한 친족과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는 經濟建設 過程에서는 政府의 요직과 당의 실무진에 전문가 집단에서 충원한 인사들을 기용하였다. 일반 주민들을 엘리트로 충원하는 방침은 이미 초기부터 採擇 施行해 온 것이다. 그 한 보기로, 1940年代의 勞動黨 資料에 의하면, 당 간부의 충원을 위해 “광범위한 인민층에서 우수한 새 간부들을 발견, 등용”하는 기본 방침이 나왔고 제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1980年代의 간부 충원 원칙에도 “오랫동안 로동속에서 단련된 로동자들, 특히 기관공업 공장 부문 공업 기업소의 핵심 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천명되었다(도홍렬, 1987:231-34; 이우정, 1989; 이상우, 1976).

물론, 北韓의 엘리트 충원 기준은 政治적으로 黨과 首領에 대한 충성도와 성분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이라는 歸屬的 地位, 그리고 노력동원의 한 유인으로 열성적인 집단 노력 봉사에서의 헌신도 등이다. 엘리트의 형성도 어릴때부터 사회집단내의 조직 생활, 대학 진학 및 당조직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도홍렬, 1987).

사. 北韓의 傳統的 要素와 歷史的 特殊性

끝으로, 北韓의 權力構造 形成과 유지에 있어서 北韓 社會가 물려받은 歷史的 政治文化的 유산과 전통적 요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수립, 지속되어 온 특수한 상황적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論議가 不完全하다. 물론 여기에서는 주요 항목들만 제시하고 자세한 해설은 생략한다.

北韓 權力構造의 特徵이 위에서 살펴 본대로 전체주의적 神政體制의 모습을 띠는 데에는 표면상, 광복 당시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소련의 레닌-스탈린주의를 모방한 데서 출발하였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수입한 외래제도가 북한에서 성립가능하고 그토록 오래 유지되는 데에는 그보다 더 뿌리가 깊은가 혹은 그 社會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背景的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을 간추리면, 舊韓末 이전의 傳統社會에서 물려 받은 政治文化的 遺産, 일제가 남긴 정치문화, 6.25 동란으로 인한 충격, 외부와의 단절 등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北韓이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住民으로 하여금 서방세계와 같은 개방적이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와 접촉할 기회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 채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그 社會는 過去 속에서 살아 온 셈이고 자폐적인 自我像에 사로잡혀 있다.

첫째, 일반적인 권위주의적 성향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성향, 그리고 인정주의, 연고주의와 같은 전통적 요소는 김일성의 권위주의적이면서도 가족주의적인 권력구조의 형성에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들을 그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하겠다(김경동, 1980; 이온죽, 1988; 이문웅, 1980). 우리나라의 傳統 가운데 指導者의 道德性에 대한 거의 금욕적일 정도의 기대가 있다. 김일성은 그의 權力을 正當化하는 데 있어, 率先垂範의 모본을 보이고, 군중노선이라는 원리 아래 대중을 존중하고 잘된것은 大衆의 德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自身の 誤謬로 돌리며, 청렴, 결백, 겸손하라는 등의 德目들을 主體思想의 〈품성론〉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역시 전통적 요소 가운데 인정주의는 김일성의 지도자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소설을 보면, 실

로 전지전능하고 인민을 위한 일로 분주하기 그지없는 위대한 수령이 마을과 기업과 탁아소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보고 인정스럽고 서민적인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감격하는 장면이 소설마다 반드시 등장한다(이은죽, 1988).

傳統的 要素 가운데, 集合主義는 그나름으로 몇가지 형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집합주의의 전형은 가족주의인데, 北韓은 全 社會가 하나의 家族이요,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가부장이 군림하는 형국이다. 그의 호칭에는 엄연히 “아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만 보아도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승계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가족주의의 표상이다. 그리고, 集合主義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작용한다. 그것은 社會組織의 원리로 北韓이 내세우는 구호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원리는 개인을 집단에다 沒入시키는 일종의 집단주의인데, 여기에서는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앞세우고 자기희생, 조직에의 순응, 規律性, 集團 判斷의 우위가 강조되고, 아울러 집단의 비판과 감시으로써 일탈을 방지하며, 集團의 思想教育을 수행하는 效果를 거두고자 한다(고영복, 1977:237-8; 이충, 1987).

둘째, 일제식민지 經驗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층 더 강화하는 효과 외에도, 천황제와 家族主義的 國家觀을 새로이 심어 주었고 김은 이를 원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천황제도의 특성은 종교적, 가부장적, 정치적 권위의 화신으로서 왕권의 역사적 기원을 정당화하는 조작과 역사 歪曲에 의하여 그것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며, 신민적 복종을 강요하는 宗教的 의식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의 個人 崇拜는 스탈린주의나 모택동주의의 모방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일제 천황제의 답습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自身の 正統性和 祖上까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의 歪曲은 물론이고 신민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자신과 아들의 생가를 성역화하여 어린아이들로부터 참배케 하는 등 각종 의식도 너무나 천황제를 닮고 있다(김운태, 1987; 한배호, 1975; 김경동, 1964).

셋째, 소련의 진주와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戰爭 前後해서는 北韓으로부터 脫出, 逃避, 避難하여 南韓으로 이주한 人口가 數十萬에 이르는데, 그들은 대다수가 과거의 地主나, 資本家, 富農, 商工業者, 右派 知識人, 專門職 從事者, 聖職者 等과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이들의 自意, 他意에 의한 疎開로 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소위 지배계급의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던 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기의 土地改革과 같은 民主改革이나 후의 農業協同化 같은 社會主義 改革을 상대적으로 환영할 처지에 있었던 층이다. 김일성은 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함으로써 權力 掌握과 維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소위 軍중노선이라는 戰略으로 一般 大衆들이 갖가지 집단적 활동에서 결정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안병영, 1988).

넷째, 김일성은 자신의 神政的 地位를 정당화할 때에도 그렇지만, 大衆을 선동 동원할 때에도 주요 준거집단을 과거에다 두도록 한다. 그리하여, 現在의 삶이 그들 준거집단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믿음을 지니도록 교화하는데, 北韓의 下層 住民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쓰라리고 비참한 과거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기간이다. 특히 전쟁은 북한을 거의 초토화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軍중동원을 위한 동기화라는 면에서도 나타나지만, 대외세 증오심을 핵으로 하는 자폐적 민족주의의 자극이라는 데

서도 얻어진다(Halliday, 1989). 이러한 비교는 住民을 심리적으로 통합하는 데 유용할 뿐더러 대외 증오심의 고취는 대내적 葛藤 해소와 統合에도 기여한다(Simmel, 1956; Coser, 1956).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北韓이 대외 폐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 社會의 變化 與否도 이 변수, 즉 개방 여부가 크게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V. 結 論

本 研究가 追求하려 한 것은 北韓과 같은 특이한 社會에서 어떤 個人과 그의 측근자들이 어떻게 해서 거의 神政과 같은 全體主義的 社會의 權力構造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를 社會學的 理論의 도움을 받아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였다. 최근에는 北韓에 관한 資料가 比較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문제의 성격상 그런 種類의 資料로서는 뒷받침하기가 不充分하기 때문에 부득이 理論的 해명의 接近을 택하게 되는데, 理論的 論議에서도 社會學은 이러한 特殊 事例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의 틀을 별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한되나마 갈등이론의 일반적인 테두리 속에서 특별히 이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모형들을 원용하면서 일단 하나의 說明틀을 提示해 보려고 하였다. 그것은 희소자원을 둘러싼 競爭 模型과 組織體의 필연성 모형이었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경쟁모형에 의지하여 서술해 보았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조직화 과정에서 一般大衆이란 과두적 指導者들의 組織活動과 지도력에 내어 맡기는 성향이 있음을 전제하고, 따라서 논의의 焦點을 指導者의 권력구조 形成, 掌握, 維持 過程에서 重要的 要因들과 변수들을 대략 考察해 보는 接近을 취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北韓이나 우리 나라를 다룰 때에는 우리의 傳統的 要素라든가 歷史的 特殊 狀況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배제하고서는 충분한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몇가지를 언급하였다.

요컨대, 김일성이라는 人物은 소련군이 北韓을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위에 것처럼 부각될 수 없었을지도 모를 만큼 소련 점령군의 비호와 지지들 등에 얽고 權力을 장악하고 굳히고 維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비슷한 條件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내고 現在와 같은 權力構造의 體制를 構築한 人物이다. 이 점에서 그는 客觀적으로 모종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우리 社會의 傳統的 要素와, 北韓의 당시 사정에 비추어 住民들의 지지를 獲得하는 데 필요한 措處와 戰略을 이용하는 데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을 악용하여 自己 個人의 偶像화와 神格化, 자식에게 권력을 繼承하는 처사 등에도 유감없이 發揮되고 있다.

權力이나 리더십은 언제나 相對的인 것이다. 지도자는 상대를 가지고 權力도 相對가 있다. 그 相對가 北韓의 人民들인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서 자신들을 그러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나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Michels 類의 과두제의 필연성 같은 것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끊임없는 최면과 같은 사상교양의 되풀이에 각종 통제와 유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체에 맹목으로 매어 달려 있게 하겠지만, 그러한 社會도 변할 수 있어야 人間다운 社會가 아닌가 하는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앞으로 이 방면에 理論的, 歷史的 研究가 더욱 철실하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高性俊, 1989,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능”, 〈統一問題研究〉 1-2:9-37.
- 高永復, 1977,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사회동원체제”, 〈北韓社會論〉, 서울:북한연구소: 229-82.
- 極東問題研究所, 1974, 〈北韓全書〉, 上卷, 서울:극동문제연구소.
- 金甲喆, 1976,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 〈北韓政治論〉, 서울:극동문제연구소: 72-106.
- 金瓊東, 1964, “교과서 분석에 의한 한국사회의 유교가치관 연구”, 〈李相伯博士 回甲紀念論叢〉, 서울:을유문화사: 333-68.
- 1980,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 서울:평민당.
- 1985, 〈現代的 社會學〉, 서울:박영사.
- 金南植, 1977, “북한의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 〈北韓社會論〉, 서울:북한연구소: 15-76.
- 김영규, 1989, “북한은 바뀌고 있는가?:사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학술회의 논문.
- 金永周, 1987, “언론정책과 언론구조”,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39-73.
- 金雲泰, 1987,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서울:박영사.
- 김일성, 1949,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 1권, 평양.
- 1953, 〈김일성 선집〉, 제 1권, 평양.
- 1960, 〈김일성 선집〉, 제 4권, 평양.
- 1974, 〈김일성 저작선집〉 6,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金彩潤, 1977, “북한의 사회계층”, <北韓社會論>, 서울:북한연구소: 131-72.
- 로동신문, 1974, 7.16. 1987, 8.18.
- 都興烈, 1977, “북한주민의 통제정책”, <北韓社會論>, 서울:북한연구소: 173-228.
- 1987, “엘리트 형성과 순환”,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19-47.
- 朴容憲, 1977, “북한의 정치교화 교육”, <北韓教育論>, 서울:북한연구소: 263-326.
- 卞鎮興, 1982, “북한정치체계에서의 노동당의 사상정책”, 李容弼 편 <北韓政治-이데올로기와 變化>, 서울:대왕사: 103-46.
- 北韓研究所, 1983, <北韓總覽>, 서울:북한연구소.
- 북한사회과학원, 1973, <정치사건>,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연구소,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사회과학원연구소.
- 서대숙,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옮김, 서울:청계연구소.
- 安秉永, 1973, “북한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 <亞細亞研究> 16-2:47-90.
- 1977, “북한의 정치과정”, 金雲泰 外 <韓國政治論>, 서울:박영사.
- 1988, “6.25의 정치적 영향”, <現代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II>, 서울:동아일보사: 395-416.
- 梁好民, 1977, “주체사상과 정치교화”, <北韓政治論>, 서울:극동문제연구소: 295-367.
- 1988, “정치: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李相禹 外 <북한 40년>, 서울:을유문화사: 31-109.
- 李文雄, 1980, “북한의 사회와 가족형태”, <韓國社會論>, 서울:민음사.

- 李相斗, 1979,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北韓言論의 本質과 批判>, 서울 : 범우사.
- 李相禹, 1976, “정치엘리트와 대중동원 조작”, <北韓政治論>,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 368-406.
- 1981, “북한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共產圈研究現況>, 서울 : 범문사 : 79-100.
- 1988, “서론 : 김일성 체제의 특질”, 李相禹 外 <북한 40년>, 서울 : 을유문화사 : 11-30.
- 李錫鎬, 1988, “북한정치체제에서의 동원-조직과 수단”, 李容弼 外 <北韓의 統治理念과 體制> : 107-37.
- 李溫竹, 1988, <북한사회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容弼 外, 1988, <北韓의 統治理念과 體制>,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 李愚貞, 1989, “최근 북한권력엘리트의 변화와 정책전망”, <統一問題研究> 1-2 : 38-92.
- 李 中, 1987, “집단주의적 교육체제 : 그 규범과 운용”,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81-337.
- 李泰旭, 1988, “경제 :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李相禹 外 <북한 40년>, 서울 : 을유문화사 : 111-227.
- 鄭昌範, 1987, “문화정책과 문화적 상황”,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375-402.
- 鄭千九, 1988, “북한 <주체>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변화 전망”, 李容弼 外 <北韓의 統治理念과 體制>, 서울 : 165-84.
- 조선중앙년감, 1949, 평양.

- 崔完圭, 1987, “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 :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3 - 35.
- 崔弘基, 1977, “북한의 가족제도”, <北韓社會論>, 서울 : 북한연구소 : 368 - 436.
- 韓培浩, 1975, <日本近代化 研究>,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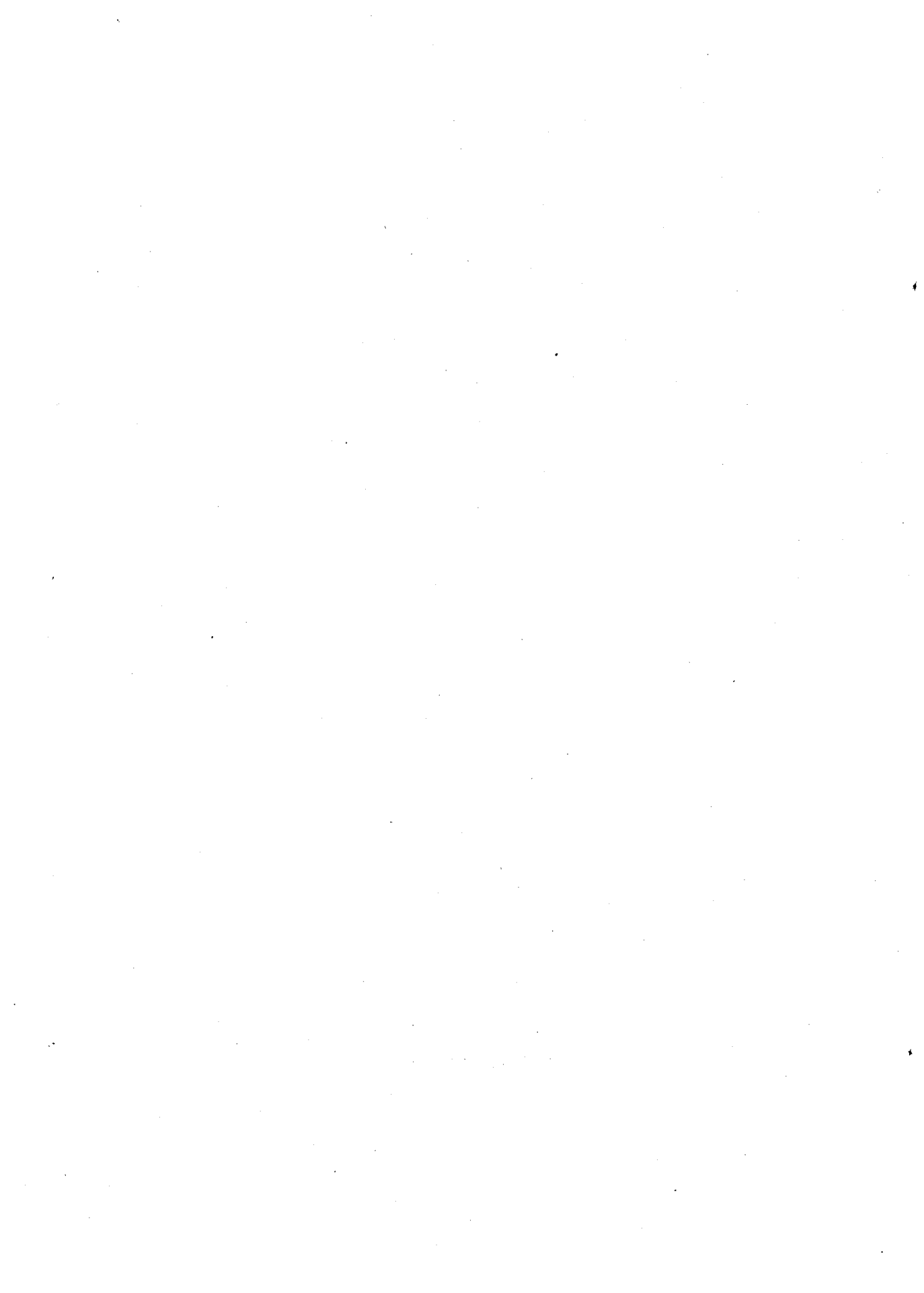
北韓의 마르크스主義

社會科學과 主體思想

이병혁 (서울시립대 교수)

◁ 차 례 ▷

- I. 머 리 말
- II. 마르크스主義 社會科學
- III. 主體思想과 社會科學
- IV. 마르크스主義와 主體思想의 關係
- V. 맺 음 말



I. 머 리 말

北韓은 光復以後 「소련을 따라 배우자」라는 구호에 따라 소련의 影響 아래서 國家의 指導指針을 마련했다. 北韓은 1972年 12月에 개정된 社會主義憲法 第4條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 라고 明示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의 지도지침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어떤 면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主體思想에 適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關係를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있다.

이 論文에서는 論議의 焦點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북한의 社會科學의 分野를 中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關係를 把握코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社會과학, 좁게는 마르크스주의 社會학이론은 일반적으로 유물사관 또는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리운다. 북한은 이러한 社會과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社會과학은 그 理論自體가 參與한 階級的 性格을 띤다. 그것은 社會과학의 대상자체가 이러저러한 계급들의 직접적인 理解關係, 存在條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르조아 어용학자들이 설교하는 社會과학의 《無黨性》, 《超階級性》은 착취제도를 擁護하고 資本家階級的 이익을 수호하는 부르조아당성의 壘物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적 社會과학은 언제나 자체의 전투적인 당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階級鬭爭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면서 社會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

를 이룩하기 위한 勞動階級의 革命鬪爭에 리론실천적무기로 복무한다.”¹⁾

북한의 사회과학은 이러한 革命的 實踐性 때문에, 理論을 위한 理論은 許容되지 않으며, 수령과 당과 革命이 要求하는 方向을 따라서만 研究된다.

科學分野²⁾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가운데서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政策은 1963年12월에 당 과학교육부문 관계자회의에서 한 「現時期 우리 革命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役割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을 해보지 못했으며, 스탈린도 사회주의의 完全한 건설을 해보지 못했으므로, 북한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북한자신의 能力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과학연구에서의 주체확립이 강조된다. 과학연구에서 주체확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북한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創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본다.³⁾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정속에서, 북한의 지도적 지침은 중·소와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국내적 政治鬪爭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당의 理念에 있어서는 1956年4월 3차 당대회에 이르러 비로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指導思想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후 1961年9월 4차 당대회를 거쳐 1970年11월 5차 당대회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그러다가 1980年10월 6차 당대회에 와서는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

1) 『政治事典』, 社會科學出版社, 평양, 1973, p.528.

2) 여기서 科學이란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망라한 학문을 뜻한다. 또 北韓의 社會科學은 人文科學의 내용까지 包含하고 있다.

3) 『北韓全書』, 極東問題研究所, 1980, p.621.

일한 지도사상으로 規定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먼저 1940, 50年代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성격을 살피고, 이어서 1960, 70年代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共存期의 사회과학의 성격을 살핀 뒤, 1980年代의 주체사상 唯一期의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結論에선, 北韓의 사회과학의 성격을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觀點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4) 김남식, “수령·당·대중조직”, in 김남식외, 『北韓社會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1989, p.212.

Ⅱ. 마르크스主義 社會科學

1940, 50年代의 북한의 사회과학의 성격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⁵⁾

人민의 투쟁의 역사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 이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우고 廣範한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고무시키기 위해 민족의 투쟁 역사를 研究하며, 그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일찍이 1943年 9월에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에 대한 교시에서 제시되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인민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原則의 창조적 적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⁶⁾ 이후 46年 11月の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등을 거치면서 인민대중의 사상개방과 정치교양의 문제는 사상투쟁의 핵심적인 문제로 되었다. 52年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상사업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서 提起되었는데, 특히 이는 당문호의 개방으로 당대열에서 신입당원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實情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인민의 투쟁역사와 문화유산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見地에서 分析하고, 이를 攝取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方針이 提示되었다.⁷⁾

5) 김경일 편, 北韓學界의 1920,30年代 노동운동연구, 創作과 批評社, 1989, pp.17~19 參照.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편, 『김일성선집』 제 1권, (1979年版), 대동, pp.188~9.

7) 김준엽外편, 『北韓研究資料輯』 제 2집, 1974, pp.323~7.

50年代 中半 무렵은 인민경제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이다. 이와 아울러 이 時期에 계급교양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사상사업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對外的으로 보면 한편에선 冷戰狀況 아래서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의 대치상태가 造成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에선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강국 사이에서 자주노선을 견지하려는 方針 때문이었다. 對內的으로 보면, 전복된 계급들의 온갖 破壞策動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影響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勞動階級の 急速한 성장과 더불어 이들의 계급적 자각을 높여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55年 4월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당원들과 勤勞者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對策들이 討議되었다. 김일성은 이 會議에서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를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하여 研究할 것이며, 계급교양사업을 생동한 현실과 실지 투쟁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계급교양의 基本方向을 提示했다.⁸⁾ 여기서 강조된 것은 교조주의적 경향의 퇴치를 위해, 먼저 당원들이 조선혁명의 구체적 현실을 똑바로 把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체사상의 形成過程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確立할 데 대하여」는 같은 해인 55年 12월에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문이다. 여기서 그는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確立할 것을 강조했다. 즉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와 지리와 인민의 투

8) 『정치사전』, pp.796~7.

쟁역사를 연구하며, 勤勞者들 속에서 이를 널리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이 創健된지 10년이 지난 時點에서 자기의 당시를 가지고 당원들을 교양하여야만 우수한 혁명전통을 발전시키고, 혁명사업에서 열성과 창의성을 發揮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나아가서 民族의 歷史와 民族문화를 體系的으로 研究하는 사업이 해방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소극적으로 되어왔다는 批判과 더불어, 이제는 간부나 학자, 資料와 資金등의 충분한 밑천과 모든 與件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研究, 組織하여 民族적 유산을 찾아내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方針은 이듬해 56年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提示되었다. 이 문제는 회의의 보고중 당 사상사업 부문에서 교조주의적 편향에 대한 批判에서 제기되었다. 報告는 人民의 鬪爭과 生活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과 大衆의 각오 정도와는 관련이 없이,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따다가 통채로 삼키는 교조주의적 폐해를 지적한 다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조선혁명의 구체적 문제들을 研究·分析하고, 당면한 實踐的 課業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문제, 특히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선전이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은 교조주의의 엄중한 표현이라고 指摘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勞動運動史, 民族解放鬪爭史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整理 또는 編纂事業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勞動運動과 民族解放鬪爭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遂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長期間에 걸쳐 전개된 勞動運動과 民族解放鬪爭의 歷史를 伸重히

연구하며 우리나라 혁명투쟁의 經驗과 敎訓으로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9)

이를 위해 혁명운동에 관한 일체의 資料를 蒐集, 整理하며 혁명운동의 역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한 事業을 強力히 推進할 것과 아울러, 이를 실제로 담당해야 할 사회과학 부분의 學者들의 任務가 강조되었다. 50年代 後半에서 60年代에 걸쳐 『歷史科學』, 『勤勞者』, 『人民』 등을 통해, 勞動, 農民, 學生運動 등의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研究, 그리고 民族의 統一獨立과 社會主義建設과 관련된 近代史 時代區分論爭, 北韓過渡期の 類型論爭 등이 集中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학의 경우, 해방후 人民學校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전체 教育體系에서 조국역사를 교수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인민의 역사, 마르크스-레닌주의 方法論에 입각한 조국역사에 대한 교과서의 편찬사업이 역사가들 앞에 主要 課業으로 提起되었다. 이 課業을 위해 歷史學徒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들의 학습과 함께 소련 학계가 달성한 成果들을 열심히 학습했다. 특히 『소련공산당 력사(간략 독본)』와 『레닌주의 제문제』 등은 해방직후 역사학도들에게 큰 방조로 되었다. 소련공산당 기관잡지 『볼셰위크』(현재의 『꿈무니스트』)와 역사학계의 月刊雜誌의 하나인 『歷史諸問題』 등 소련의 科學理論雜誌들과 교과서들, 單行本들이 청소한 北韓學界의 理論水準을 提高함에 큰 역할은 거대하다. 그 밖에 당의 혁명전통에 관한 資料蒐集事業(주로 現地踏査와 회상기를 통해)과 그 編輯·出版事業이 進行되었다. 이런 課業을 위해선, 집체적인 연구방법과 학계에 자유로운 論爭의

9)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主要 文獻集』, 돌베개, 1988, p.156.

분위기를 계속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⁰⁾

經濟學의 경우에도, 당 경제 정책을 擁護하여 필진을 전개하였으며, 논진을 동원했다. 日帝下 우리나라 社會經濟構成으로부터 過渡期의 특성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戰後 經濟建設의 총노선과 社會主義 工業化, 農業의 協同化, 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的 개조 등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經濟學界에서 중심적으로 研究, 論議되었다. 經濟學界는 사소한 수정주의적 傾向에 대해서도 고도의 경각성을 높였다. 그리하여 경제학계는 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어 당 중앙을 보위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고자 했다. 아울러 경제학 수준의 전반적인 提高를 위해 경제학 고전 번역 및 普及事業에서도 一連의 성과들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資本論』과 『레닌전집』번역문판 출판이 完了되었다. 각급 간부학습용 정치경제학 교재들이 출판되었으며, 大學教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한 10종의 대학용 경제학 교과서들이 創作, 出版되었다.

經濟學者들은 당의 영도에 의하여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社會主義 建設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 任務로부터 출발하여 자기들의 과학연구 사업을 統一的 計劃밑에 집체적으로 均衡觀點에 입각하여 진행 함으로써 主體性있는 經濟學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위에서 본 집중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窮極的으로 '生産(혹은 訓練)도, 學習도, 生活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 혁명 전통이 樹立되었으며, 항일

10) "8.15 解放後 조선역사학계가 걸어온 길" in 이병천 편, 北韓學界의 한국근대사 논쟁-사회성격과 시대구분문제-, 創作과 批評社, 1989, pp.269~94 參照.

11) "解放後 15年間の 經濟學界의 發展", in 이병천 편, 앞의 책, pp.309~25 參照.

빨치산의 혁명정신과 사업작풍을 본받아 革命偉業에 獻身하려는 기풍을 공산주의적 품성의 전형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¹²⁾

12) 김경일 편, 앞의 책, p.19.

Ⅲ. 主體思想과 社會科學

이 章에선 1960, 70年代 마르크스-레닌주의와 主體思想의 공존기의 社會科學의 성격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1980年代의 주체사상 유일기의 社會科學의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1.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主體思想의 공존기

우선 이 時期의 歷史的, 社會的 맥락을 살펴보자. 13)

北韓의 社會主義革命은 經濟體制와 당조직 그리고 사상투쟁 등에서의 一連의 變化와 鬪爭을 통해, 1958年 8월에 일단 完遂되어, 社會主義的 生産關係가 北韓社會를 전일적으로 支配하게 되었다.

北韓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 당이 소극성·보수주의·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 특히 대중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천리마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천리마운동은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援助가 크게 감소되고, 중국은 北韓을 지원할 能力을 갖지 못한 條件속에서, 북한이 59년말에 5個年計劃을 3年이나 앞당겨 完遂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5個年計劃의 초과달성에 고무된 북한은 61年 9月 조선노동당 제 4차대회를 소집했다. 5個年計劃의 수행을 통해 사회주의의 기초를 建設했다고 宣言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에 돌입한 것이다. 이 段階에선 사회주의 혁명에 이어 思想革命·文化革命·技術革命 등 3大革命을 사회주의의 完全勝利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수행하는 ‘繼續革命’의 論理가 관철된다.

13) 한홍구, “알기쉬운 北韓 現代史”, 김남식 외, 앞의 책, pp.113~47 參照.

조선노동당 제 4 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基本課題로서 7 個年計劃 (1961 ~ 1967) 을 제시했다. 과거의 5 個年計劃이 社會主義工業化의 기초를 축성하여, 북한을 社會主義 工業·農業國家로 發展시키는 것을 目標로 했다면, 새로운 7 個年計劃은 社會主義工業化의 完遂와 全面的인 技術革命·文化革命을 통해, 人民생활을 劃期的으로 變化시키는 것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이 計劃을 推進해 나갈 당지도부는 1956 年 3 차당대회에 비해 보다 젊은 層으로 構成되었다. 이제 主體思想과 항일무장투쟁의 革命傳統은 새로운 時代를 支配하게 되었다. ‘소련을 향하여 배우자!’ 라는 50 年代 初半의 낡은 구호는 ‘革命傳統을 계승하자!’ 라는 새로운 구호로 대치되었다. 北韓에서 『조선근대혁명운동사』나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조국은 생명보다 귀하다』등과 같은 革命傳統에 관한 教材가 편찬되어 널리 읽힌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김일성은 이 무렵 대중노선 관철의 중요수단으로서의 ‘現場指導’를 통해 ‘청산리방법’과 ‘大安의 事業體系’를 定立함으로써, 농업과 공업의 지도지침을 일반화한다. 청산리방법의 基本은 웃기관이 아랫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實情을 깊이 알아보고, 問題解決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革命課業을 遂行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안의 事業體系의 핵심은 大型化된 工場 및 企業所에 대해 既存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廢止하고, 多數 勤勞者의 參與가 보장되는 공장 당위원회의 集團的 指導 밑에 工場과 企業所를 管理·運營해 나가는 것이었다.

1962 年 12 月 당중앙위원회 4 기 5 차전원회의는 ‘經濟建設과 국방건설의 병

진' 方針을 採擇했다. 북한은 國防에서의 自衛原則을 實現하기 위해 '전
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採擇
하게 된다. 이 노선은 군사기술부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대
와 전인민을 政治思想的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모든 군인들을 한
등급이상의 職務를 遂行할수 있도록 만들고,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로 武裝
시켜, 強力한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確立'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計劃의 遲延, 中蘇紛爭, 中國文化大革命의 影響등 여러가
지 어려움 때문에 당내논쟁에 빠지게 된다. 즉,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
로의 과도기는 어디까지며,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언제까지 계속되며, 社會主義
의 완전한 승리는 언제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提起되었다.

理論的인 문제는 당면한 7個年計劃과 관련해서도 제기되었다.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병진정책으로 7個年計劃의 완수를 3年이나 뒤로 미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經濟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과업은 다시금 혁
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에게 주어졌다. 1970年 11月の 5차당대회를
앞두고, 北韓은 3年이 延長된 7個年計劃을 완수하기 위해 '社會主義 建設
의 모든 전선에서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 돌입했다. 천리
마운드의 첫 봉화를 올렸던 강선제강소 勞動者들은 또다시 '강선속도'라는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努力에 의해 7個年計劃은 마침내 완수되었고, 北韓社會主義者들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달성하여, 사회주의 工業-農業國家에서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轉換했다고 주장한다.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段階를 거쳐, 社會主義革命段階를 지나 社會主義의 全
面的 建設時期에 돌입한 北韓은, 革命段階의 發展에 따라 새로운 農村問題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農村에 樹立된 社會主義制度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위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發展시키고, 農民生活을 풍요롭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낙후성을 없애고, 都市와 農村間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64年2月 김일성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이 테제에서 김일성은 社會主義下에서 農村問題의 해결을 위해 견지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농촌에서 技術革命과 文化革命, 思想革命을 철저히 遂行해야 하며 둘째로, 農民에 대한 勞動階級の 指導, 農業에 대한 工業의 방조, 농촌에 대한 都市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企業管理 水準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連繫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1960年代의 북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側面은 자주노선의 確立이라 할 수 있다. 자주노선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思想에서의 주체·정치에서의 자주·경제에서의 自立·國方에서의 自衛로 특징지어진다. 북한의 자주노선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 것은 자주노선이 그들의 혁명과 건설의 方向을 결정 짓고, 또 그들의 經濟構造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970年度에 7個年計劃을 완수한 북한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建設이 이루어졌다고 宣布했다. 北韓은 1970年11月 제5차 당대회를 소집하여, 北韓에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發展시키고,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鬪爭課業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6個年計劃(1971年~76年)을 시작했다. 김일성은 6個年計劃의 基本課業을 ‘社會主義 經濟建

設分野에서 工業化의 成果를 公고·발전시키며, 技術革命을 새로운 높은 段階으로 전진시켜, 社會主義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勤勞者들을 힘든 勞動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5차당대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6個年計劃의 제시보다는 '남조선혁명'과 '전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60年代以後 남조선혁명, 전조선혁명, 조국통일을 區分하기 시작한 北韓이 이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그에 관한 이론적 定立을 완결지은 것이다.

5차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긴다'는 課業을 設定한 北韓은 이를 위해 國家社會制度를 公고히 해야 할 必要性을 절감하고, 새로운 社會主義憲法 제정에 착수했다. 1972年 12月 27日 北韓의 최고인민회의 제 5기 1차회의는 1948年 9月 8日에 제정된 인민민주주의헌법 대신 全文 11章 149條로 構成된 社會主義 憲法을 採擇했다.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具現했다는 이 헌법에는 그동안 북한이 追求해온 거의 모든 것이 '이미 달성된 성과의 총화'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법적 담보'이자 '강력한 무기'로서 등장했다. 즉 김일성이 지도해 온 3大革命(11條), 청산리정신(12條), 천리마운동(13條), 4대 군사노선(14條), 대안의 事業體系(15條)는 이제 헌법규범으로 法制化되었다.

1974年 2月 北韓에선 당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대건설방침을 제시하면서, '다음해까지 6個年計劃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행하여 총진군'할 것을 호소했다.

김일성이 '速度戰'의 방침을 提示한 것도 이 무렵이다. 속도전이란 모

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며, 그 질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최단기간내에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최상의 成果를 이룩하도록 하는 社會主義建設의 기본적 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事業展開原則이다. 이제 '달리는 천리마'에 새로운 '속도전'이라는 박차가 가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974年10月 金日成父子는 北韓住民들에게 6個年計劃의 조기완수를 위한 '70일전투'에 총돌격할 것을 촉구했다.

70일전투의 강행군에 힘입어, 당은 1975年10月10日 당창건 30주년 記念日 以前에, 6個年計劃이 1年4個月 앞당겨 75年8月末에 完遂되었다고 주장했다.

6個年計劃을 완수한 北韓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經濟計劃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1977年을 '일부 경제부문에 造成된 긴장성을 풀며, 새 展望計劃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완충의 해'로 선포했다. 지난 수십년간 그들 자신의 표현대로 '만부하·만가동(滿負荷·滿稼動)'으로 치달려온 사람과 기계에는 이제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부문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뒤떨어진 分野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分野의 生産性を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했다.

1977年12月 새로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의 6기1차회의는 제2차7개년계획(1978~84)을 立案했다. 김일성은 이 計劃의 基本課業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란 자체의 資源과 技術에 의거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제를 建設·發展시키는 것이고, 現代化란 낙후된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해서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서, 生産工程의 전반적 자동화와 綜合的 機械化를 目標로 삼으

며, 科學化란 科學技術을 發展시켜 모든 部門의 生産과 經營活動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 세운다는 것이었다. 이 計劃은 6 차당대회이후인 1984년에 終結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北韓에서의 당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은 바로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이 「主體思想」이라고 불리워진다.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주체사상이 指針이 된다.

‘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革命과 建設의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指導思想이며, 사회적 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과 사회과학자들의 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14)

실제로 1972年4월에 있었던 北韓 「全地域社會科學者大會」에서는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손수 풀어주었다」는 김일성수령의 업적이 철학, 경제학, 역사학, 교육학, 언어학, 문예학, 당이론 및 國家建設理論 등 사회과학 전분야에 걸쳐 나열되고 있으며, 「社會科學者の 맹세문」이라는 것을 통해, 김일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社會科學 全般과 개별과학연구의 方向을 밝히고 있다.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15) 첫째, 社會科學研究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社會科學이 革命과 建設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社會科學은 北韓住民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시키고 당정책과 노선의 정당성을 論證하며, 셋째, 主體思想으로 社會科學 全部門을 體系化시켜 당사업을 도우겠다는 것이다.

14) 『북한전서』, p.623.

15) 앞의 책.

이 맹세문은 계속해서 철학을 비롯한 개별사회과학의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의 獨自性を 포기하고, 김일성수령의 말을 금과옥조로 해서 수령의 가르침을 연구의 基本方向으로 삼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철학연구분야에선, 주체사상에 입각한 철학적 해석만이 횡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주노선의 정당성을 理論化하려 했고, 우리나라의 철학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소련 철학서를 번역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 (상권 1962, 하권 1966 發刊)에 김일성의 말이 引用되어 挿入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시기 정진석, 정성철, 전창원 세 사람이 지은 『조선철학사』(상권, 1962. 2 철학연구소刊)가 주목되는데, 이 책은 노동당 4차대회에서의 김일성 「교시」에 따라 저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 철학사를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의 도식에 집어넣어 해석, 역사인물중에서 유물론적 사유와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유물론자로 규정하고, 역사사실중에서 투쟁적 요소만 있으면 계급투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⁶⁾

철학사에 관한 책으로는 또 『조선철학사상사 연구』(최봉익 집필, 사회과학출판사刊, 1975. 5)가 있다.

이 책 역시 『조선철학사』에서 보듯이 우리 철학사를 觀念論에 대한 유물론의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순수한 철학적 사유뿐 아니라, 계급투쟁적 정치사상, 경제사상까지 研究對象으로 삼고있다.

이 책의 結論은 다음 몇 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유물론사상의 계속발전: 서구에는 철학이 신학의 시녀가 되었던 中世暗黒期가 있어서 유물론이 연속

16) 앞의 책, p.631.

적인 發展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물론이 중단없이 發展해 왔다. 둘째, 무신론사상의 발전: 우리나라에서는 구라파와는 달리 외래종교가 뿌리박을 수 없었다. 셋째, 변증법사상의 발전: 사물발생과 消滅을 氣로서 설명했던 고대의 소박한 변증법으로부터 氣一元論을 내세운 증세철학까지 변증법적 사고가 있었다. 넷째, 현실적 문제와의 결부: 우리나라 철학사상은 항상 추상적 사색을 거부하고, 社會政治的 現實問題와의 연관속에서 발전해 왔다.

집필자는 이 책이 김일성수령의 주체사상으로 사상이론 및 방법론적 기초를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니와, 이 책을 통해 모두가 김일성사상의 추종자가 되어야 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¹⁷⁾

교육학분야에선, 김일성수령이 창시했다는 「사회주의 교육학」이 提示되었다. 사회주의 교육학은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14차 전원회의(1977. 9. 5~7) 첫날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로 發表되었다.

社會主義 教育學은 社會主義 教育의 目的達成을 위한 이론을 提供하는 것으로,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革命과 建設에 주인답게 參加할 수 있는 思想과 知識과 긴장한 體力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는 데는 사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질적 토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맞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공산주의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意識의 개조를 위한 思想革命을 강조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의식의 개조를 중시하는 것이 「사회주의 교

17) 앞의 책

육학」의 基本原理인데, 이러한 기본원리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현 원칙이 提示되고 있다. 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 ② 主體確立의 원칙, ③ 계급성의 원칙, ④ 과학성의 원칙, ⑤ 教育과 生産勞動의 결합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原則에 입각해서,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은 지덕체를 兼備한 「共產主義的 人間」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強化한다.

정치사상교양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교양·공산주의교양을 시키며, 과학기술교육은 一般知識과 專門知識을 병행해서 習得시키며, 체육교육은 學生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의 역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教育方法으로서는 담화, 문답식 교육, 직관교육, 해설등을 통한 깨우쳐 주는 方法, 講議와 實習의 결합, 組織生活과 社會政治活動 參與,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의 결합,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연결시키고 있다.¹⁸⁾

言語學의 경우, 1930年代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뿌리를 둔 黨의 言語政策에 따라, '김일성수령의 혁명적 文風을 따라 배워서' 黨의 유일사상으로 뭉쳐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문화어」로, 사회주의민족문화의 개화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의 언어는 문화어의 본보기이며, 우리의 문화어는 수령의 언어사상을 구현하고, 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꽃피어난 언어이다. 그런 만큼 조선말 뜻풀이사건이 수령의 언어를 정확히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주체성의 원칙을 관철하는데 첫째 표징으로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한다.¹⁹⁾

이러한 문화어 운동은 1966年 5月 언어학자들에게 민족어의 주체성을 거듭 강조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지상토론과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산하 18개 용어분과위원회의 제정 및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의 통제로 推進되며, 당정책화된 어휘수업을 통해 그 철저한 普及에 힘쓰고 있다.

특히 1968년에는 季刊誌 『문화어 학습』이 전문지로 創刊되고, 교시에 의한 신체제의 사전도 간행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언어학론문집』, 『다듬은 말』(표준말초고) 등을 단행본으로 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²⁰⁾

경제학의 경우, '김일성수령이 우리 時代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 즉 주체의 정치경제학을 창시하였다'는 주장처럼, 김일성의 주장을 진리로 받아 들이는 학문이 되고 있다.

1972年 4月에 있었던 北韓 「全地域 社會科學者大會」에서, 經濟學分野에 끼친 김일성업적이 상찬되고 있다. '...군중노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학을 창시하며,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을 심오하게 밝히고, 그것을 옳게 認識 利用하기 위한 과학적인 原則과 방도들을 내놓았고,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영학을 새롭게 體系化하고 ...' ²¹⁾

北韓의 『경제론문집』(1975. 7. 社會科學出版社)에 실린 6편의 論文中 1편만이 김일성이론의 해설이 아니다. 그러나 이 한편도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언설을 引用하고 있어 집필자의 독자적 論理展開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8) 앞의 책, p.638.

19) 앞의 책, p.641.

20) 앞의 책, p.651.

21) 앞의 책, p.652.

社會主義社會에서 마르크스主義의 해석권이 당에 주어진다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에선 사회주의 과학이론의 해설이 당이 아닌, 수령인 김일성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研究는 이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학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2. 主體思想 唯一期

北韓은 70年代까지의 社會主義建設過程을 總括하고, 80年代의 基本政策과 課業을 설정하기 위해, 1980年 10月 10日~14日까지 조선노동당 제6차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大會에서 김일성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 ‘온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인텔리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등 70年代부터 적극적으로 推進해오던 과제들을 80年代에도 계속 수행해 나갈 事業으로 提示했다. 이런 과업들은 당사업, 그 중에서도 유일사상체계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方案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이런 강령적 과업이 각 분야에서 推進된 狀況을 簡略하게 살펴보자.²²⁾

政治動向에 있어선, 수령의 유일적 指導體系가 한층 강화되고,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의 構築이 계속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1982年 3月 31日 發表된 김정일의 論文인 「主體思想에 대하여」는 그간 理論的인 정식화의 과정을 거쳐 온 주체사상의 이론구성이 비로소 體系化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6차대회에서 형성된 권력구조는 그후 체제상에 있어서의 變化는 없으나,

22) 김남식, “80年代 北韓의 움직임”, in 김남식 外, 앞의 책, pp.187~8.

당의 핵심적 地位에 있었던 빨치산 출신들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엔 金正日의 측근 인물들인 당, 기술관료들이 충당되었다. 그 밖에 당 정치국원과 비서, 정무원 총리, 인민군 총참모장 등의 主要 人物들의 變動이 있었으나, 이는 김정일의 指導體制 構築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된 것으로서, 정치권력면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經濟分野에선, 2次7個年計劃에서 基本方針으로 책정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3次7個年計劃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社會主義 完全勝利’를 촉진키 위한 경제토대의 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發展과 住民生活의 향상을 위한 政策을 강력히 推進해 나가고 있다. 경제관리방식에선 ‘大安의 事業體系’를 變化하는 환경에 適用토록 하는 여러가지 방식들을 導入해 나가고 있다.

外交分野에선 6차대회에서 정립한 자주·친선·평화의 3代理念을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으로 삼고, 중소와의 관계에 있어선 자주외교를 철저히 견지해 나가고 있다. 84年5月과 86年10月 2차에 걸치는 김일성의 모스크바訪問은 그간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소련과의 관계가 새로운 친선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고르바초프의 등장 후, 對蘇 관계는 보다 진전되어 가고 있다.

한편, 中國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이며 혈맹적인 유대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

통일문제에 있어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實現하는 方向에서 그간 수많은 대남제의를 전개해 왔는데, 특히 84年부터는 3者會談을 提議함으로써 軍事問題의 우선해결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再確認하고, 積極인 대남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군철수와 군사적 緊張緩和

없이는 南北關係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처럼 80年代 北韓의 對內外 政策의 전개는 중소를 비롯한 外的 環境의 급격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서 큰 변화없이 推進되어 가고 있다. 이는 北韓이 內的 論理인 주체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모델에, 그리고 혁명적 수령관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思想革命과 인간개조를 우선시하면서, 모든 政策을 ‘민족제일주의’라는 관점에서 推進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위에 言及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위에서 전개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 뿐만 아니라, 남조선 혁명과 祖國統一, 나아가서는 世界革命에 관한 이론까지를 포괄하는 廣範한 理論體系를 가지게 되었으며, 1985年 조선노동당이 당 창건 40돌을 記念해서 출판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全 10卷: 1.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3.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4.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리론 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 6. 인간개조리론 7.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 8.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9. 령도체계 10. 령도예술)에서 思想—理論—方法의 全일적 體系로 집대성되었다.

社會科學部門에선 主體思想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思想, 理論에 대한 研究를 앞세우면서, 주체사상을 思想理論的, 方法論的 기초로 하여 科學研究事業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社會科學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풍부히 하고, 주체적인 사회과학을 建設, 發展시킬데 대한 당의 사회과학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사회과학을 더욱 促進시키게 된다.

哲學分野에선,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體系로서의 김일성의 혁명사상의 특징과 그 역사적 地位, 主體思想의 초석을 이루는 哲學的 原理,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주동적인 作用과 役割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역사의 합법칙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指針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展開한 혁명운동의 原理와 전략전술,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영도방법 등 주체사상에 기초를 둔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哲學分野에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理論을 포괄하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理論을 집대성한 完成된 共產主義 理論으로서의 주체의 革命理論을 研究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특히 여기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어가는 過程으로서의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 완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理論, 공산주의건설의 基本戰略目標와 그 실현방도, 즉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점령에 관한 理論과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에 관한 理論에서 成果를 거두었다.

철학연구분야에선, 또한 주체의 方法論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고대, 중세시기의 철학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體系化하는 事業에서 진전을 이룩했다. 이와 함께 ‘부르조아철학과 부르조아사회학의 조류등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이 펴뜨리고 있는 온갖 적대적 사상과 남조선에 유포되고있는 각종 반동사상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폭로비판하는 연구사업도 벌였다.’²³⁾

23) 『조선중앙년감』, 朝鮮中央通信社, 1985, p.240.

經濟學分野에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대안의 事業體系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社會主義經濟管理體系의 優越性, 計劃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올바르게 실시하여, 經濟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研究를 진행했다.

또한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기초한 社會主義나라들사이의 經濟關係의 발전, 신흥세력의 形成과 신흥세력나라들의 社會經濟關係의 特徵, 經濟의 자주적 발전과 낡은 國際經濟秩序의 청산과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確立에 관한 問題를 研究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 경제정책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약탈의 本質을 폭로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確立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조아경제이론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는 연구'도 推進하고 있다.²⁴⁾ 1987年度 들어와선 '현대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와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한 과학이론적 分析을 위한 研究' 事業을 벌이고 있다.²⁵⁾

國家建設理論 및 法學 研究에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과 법건설사상이론의 위대성과 독창성, 특히 준법교양과 革命的 준법기풍확립에 관한 理論을 과학적으로 해설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進行되었다.

또한 社會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와 주권기관의 법무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問題, 社會주의국가관리의 原則과 行政經濟指導機關들의 역할제고에서 나

24) 앞의 책.

25) 앞의 책, 1987, p.270.

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추진되었다.

한편 環境保護法의 규제내용, 국가사회재산관리와 법적 통제에 대한 이론문제들이 연구되었다.

또한 ‘15세기 이조봉건국가의 통치기구체계와 부르조아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法社會學」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벌였다.²⁶⁾

이밖에도 “남조선이 조작한 남조선의 각종 惡法의 반동적 본질과 그 반인민적 성격을 폭로단죄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부르조아 법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했다.²⁷⁾

역사연구분야에선, 김일성의 혁명역사와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해방후의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역사연구에 沒頭했다. 특히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전당과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위한 鬪爭과,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路線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의 鬪爭史를 一般化하고 體系化하는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문별 역사편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관계사, 조선중세교통운수사, 조선중세상업사, 조선중세음악사, 조선병제사(고대-고려편)에 대한 연구사업을 벌였다.

또한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한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 일제의 무단통치를 비호한 미제의 죄악, 3.1 봉기를 교살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죄악, 일제의 조선 식민지통치를 뒷받침해준 미제의 죄행 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조선침략과 략탈을 위하여 어떻게 공모결탁하였는가 구체적 역사

26) 앞의 책,

27) 앞의 책, 1985, p.240.

적 사실과 자료를 통하여 폭로하는 사업과 조선에 대한 미제의 백여년간의 사상문화적 침략사와 중근동에 대한 제국주의열강들의 침략사를 연구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28)

1987년에는, 部門別 역사편찬의 계속적 사업으로, 우리나라 原始社會로 부터 19세기중엽 근대이전시기까지의 政治制度史, 고조선시기부터 고려시기까지의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 19세기말 20세기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反日義兵 鬪爭史, 原始時代로부터 近代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수산업발전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봉건교육의 쇠퇴몰락과 근대교육의 발생발전역사,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발전역사, 세나라시기부터 고려시기까지의 조선인민의 풍속사에 대한 연구를 推進했다. 29)

言語學部門에선,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독창적인 언어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일반언어이론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하며, 민족어를 發展시키는데서 提起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세계언어학계가 도달한 이론적 성과를 개괄하는 事業을 遂行했다고 한다.

또한 한자말에 대한 연구를 심화했으며, 조선말 어휘구성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속담을 묶는 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조선말방언에 대한 言語地理學的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켰으며, 함경도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전면적으로 推進시켰다. 이밖에 ‘문자이론, 주체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장이름의 유래, 17-19세기 전반기의 조선말역사에 대한 연구, 日帝의 조선말 말살정책과 그 반동적 본질에 대한 연

28) 앞의 책,

29) 앞의 책, 1987, p.271.

구사업을 추진시켰다.’ 30)

또한 문법구조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 研究를 심화하여, 조선어이론문법(형태론과 문장론)을 서술편찬했다.

특히 『조선말대사전』의 편찬을 推進했다. 이리하여 사전편찬을 위한 理論的인 研究와 資料調査事業이 다그쳐졌으며, 조선말의 뜻을 풀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대사전편찬의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또한 고장이름의 변천 역사를 밝히며 해방후 행정구역이름의 변천 과정을 밝히기 위한 文獻研究事業과 考證事業에서 적지 않은 전진을 이룩했다. 31)

30) 앞의 책, 1985, p.241.

31) 앞의 책, 1987, p.271.

Ⅳ. 마르크스主義와 主體思想의 關係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주체사상의 강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主體思想의 지위문제와 關聯을 갖게 되는데, 종래 북한의 입장은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과 유물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함으로써, 繼承性和 創造性を 균형적으로 취해 왔다. 그러나 主體思想의 理論的 深化와 指導原理로서의 지위의 強化는 繼承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되, 점차로 創造性を 強調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黨大會에서 黨規約이나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指導理念의 變化를 反映하고 있는데, 指導理念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主體思想의 共存期를 거쳐, 유일하게 주체사상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얼핏 보기에 상호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側面에서 主體思想의 思想理論的 體係와 그것의 政治社會的 具現을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입장은 양자의 차별성을 크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社會科學院의 박승덕교수가 1988년 5월 북한에서 開催된 「朝鮮關係 專門學者들의 국제과학토론회」에서 제출한 보고와 1989년에 海外에서 발표한 論文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박승덕은 사대주의를 主體思想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주의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思想’이라고 주장했다. 박승덕의 이러한 論旨은 주체사상이 ‘새로운 시대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認識發展의 必然的 要求를 反映’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며, 이것은 先行 思想에 의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解明된 다음단계에서 提起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 이를테면, 물질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계를 改造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해서 主體思想이 해답을 주었다는데 근거한다. 결국 그의 主張에 의하면, 主體思想이 唯物論的 性格과 변증법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변증법적 唯物論만으로는 主體思想의 本質을 說明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 유물론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哲學이라는 데서 그 本質이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체사상의 ‘중속적이며 부차적인 契機’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32)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와 主體思想의 관계에 관한 論議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主體思想의 內容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으로 要請된다.

김정일의 1982년 論文이나 1985년에 나온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主體思想의 核心은 철학적 원리, 社會歷史原理, 지도적 원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은 별개로 분리되어 存在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기본입장으로서의 세계관과 인간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論文에선 社會科學的 關心에 초점을 맞추어,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보다는 社會歷史原理에, 사회역사원리중에서도 核心이랄 수 있는 ‘首領論’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근거한 인민대중의 社會歷史原理는 ‘主體’의 관점에서 自然改造, 社會改造, 人間改造의 3대 改造를 과제로 提示한다. 이러한 3大改造의 課題는 ‘자주성’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32) 정대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 in 김남식외, 앞의 책, pp. 202-3.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社會政治的 生命의 重要性의 根據가 되는 동시에, ‘創造性’의 관점에서 간고한 革命課業의 수행을 위한 수령의 역할로 귀착된다. 이것을 主體思想에서는 ‘수령론’으로 정식화하여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기본으로 해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적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수령론의 문제는 철학적 원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提起하는 철학의 根本問題 다음으로 重要하게 취급되는 문제이며, 철학의 근본문제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³³⁾

그럼, 수령론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관건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의 概念을 살핀 뒤, 이어서 수령-黨-인민대중과 權力構造의 관계를 살펴보자.

수령-黨-인민대중의 概念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³⁴⁾

가. 수 령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해서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主體思想에서 主張되고 있는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 建設에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理論에서 출발된 독창적인 概念의 定立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독창적인 概念定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唯物史觀에 따르면, 물질적 생산은 社會生活의 기초이며, 사회발전의 결정적

33) 앞의 論文, pp.196-7.

34) 김남식, “수령·당·대중조직”, 김남식外, 앞의 책, pp.210-14. 참조

要因으로 되기 때문에 역사는 물질적 생산의 담당자인 근로대중이 그 主體가 된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역할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창조하는만큼 그러한 社會發展法則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선각자 또는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만 감취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지도자에 의해서 대중이 意識化되고, 組織化될 때만이 대중은 보다 큰 힘을 발휘하여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主體思想에서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階級社會에서의 지도자에 관한 地位와 역할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社會主義社會에서는 특별히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主體思想은 계급사회와 사회주의 社會와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階級社會에서 人民大衆은 역사의 主體로서 그에 相應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에 반해,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참된 주인으로서 역사에서 決定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의 인민대중은 계급사회의 인민대중과 동일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정치적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인민이라는 것이다.

둘째, 階級社會에서의 정치지도자는 인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인민대중과는 一心同體로서, 인민이 公認하고 추대한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사회와는 달리 인민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도 역시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지도자에 관한 새로운 理論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며, 그것이 주체사상에서 천명하는 수령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核心的인 것은 사회주의 및 共產主義社會를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자주적인 社會政治的 生命體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서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정치적 생명은 인간이 자연과 사회적인 拘束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集團으로 되어있는 사회도 자주성이라는 政治的 生命이 있으며, 이러한 論理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사회를 발달된 자주적인 社會政治的 生命體로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指揮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적 인간들의 생명의 중심이 腦髓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腦髓인 수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論理이다. 이러한 論理로 부터 수령과 사회성원과의 관계는 全體와 部分間의 관계이자, 崇高한 동지적 관계가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험자이자 統一團結의 중심이며, 指導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령은 革命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문제가 主體思想에 의해서 理論적으로 定立된 것은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나. 黨

사회주의 이론에선, 黨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鬪爭하는 계급의 先鋒隊’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鬪爭하는 가장 선진적인 黨’이라고

설명된다.

북한에선 이러한 黨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더불어 노동계급의 黨은 수령에 의하여 創建되며, 領導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의 概念으로 보고 있다. 즉 노동계급의 黨은 한마디로 수령의 黨이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黨 6 차대회에서 改正된 당규약을 보면, 黨의 성격을 수령(김일성)의 黨이라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黨規約 前文은 ‘朝鮮勞動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革命的 黨……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지도된다……抗日鬪爭時期에 偉大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 發展시킨다……주체사상에 기초한 前黨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는 것으로, 黨의 創建, 黨의 思想, 黨의 전통 등이 모두가 김일성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明文化하고 있다.

다. 인민대중

북한에서의 ‘人民大衆’은 마르크스가 규정한 유물사관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주체사관의 관점에서, 그 概念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자주성 실현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이라고 본다. 즉 인민대중의 구체적인 계급적 구성은 사회역사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노예소유자사회 ; 농민, 평민

封建社會 ; 농노, 농민, 수공업자

資本主義社會；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 등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

이런 분류는 해당 사회에서 지배계급을 제외한 피지배계급 일반을 包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주장하는 革命動力의 內容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역사의 발전을 階級鬭爭이라는 側面에서 설명한 유물사관의 主張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 보고,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이 사회적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체사관에서 인민대중을 사회운동의 主體로 보는 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적 운동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위에 있으며, 그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自然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인민대중이라는 주체가 있다. 이러한 주체가 사회의 變革과 발전을 직접적으로 담당 수행해 나가며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인민대중이라는 주체는 사회를 改造하고 진보적인 사상문화의 발전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을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 보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물질적 부의 생산이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의 기초이며, 따라서 역사를 창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규제된다’는 유물사관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민대중의 기본을 이루는 노동자·농민은 생산수단의 人民的 所有와 協同의 所有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해방후의

노동자·농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처지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思想改造事業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세계관의 형성과 그로부터 主體哲學에 의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집단주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새로운 도덕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형으로 개조되었다는 것 등이 북한에서 갖고있는 人民大衆에 대한 觀念이다.

그럼 수령-黨-人民大衆과 權力構造의 관계는 어떠한가? 35)

북한의 權力構造는 수령-黨-인민대중이라는 전일체적 관계속에서 각기 자기역할을 충분히 발양하도록 하고, 수령의 지위와 그의 유일적 지도를 가장 效率的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權力構造는 당과 국가, 그리고 근로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주의에서의 계급의 지배 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 등으로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包括的인 政治組織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가.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계

북한의 지도체계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출판물에선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국-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

35) 앞의 論文, pp.219-24 참조

보'라고 그 의의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수령의 革命思想을 유일한 지도적 指針으로 하여 전당-전국-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모든 사업을 수령의 영도체제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그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革命的 질서와 規律이 確立되어야 하며, 세째로 '수령의 영도는 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부분에서는 黨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하에 革命과 建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당 우위(영도)적 국가체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은 본래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입장에서 權力構造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북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1970년 11월 5일자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社會主義憲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립시켰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은 각급행정 및 생산단위들에 자기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수령의 革命思想을 政策化한 黨의 정책과 결정을 국가기관들에게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가주석제와 權力의 집중:

북한의 국가지도기관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 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 그리고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및 사법·검찰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舊憲法下에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합의제 대통령제였는데, 이때 김일성은 黨의 총비서와 내각 수상직을 兼任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에선 '합의제대통령제' 대신에 '국가주석제'를 택해 그 자리에 김일성을 추대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의 유일적 지도

체제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다. 또한 舊憲法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지위와 權限을 주석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종래 내각수상의 주요 권한까
지를 국가주석에게 집중하도록 했으며, 또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
人民委員會의 首位를 주석이 兼任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국가주석인 김
일성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주석에 의한 유일한 지도체제는 지방정권기관의 활동을 규제한
지방정권구성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도·시·군 지방인민회의 대의
원의 임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黨의 유일사상체계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강
화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黨의 유일사상체계’의 確立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선 黨의 유일사상체계에 대해 ‘전당과 전체인민이 자기 수
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의 유
일적 영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革命的 수령관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며, 영도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
한 정치적 무기이므로, 그러한 당 내에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 하나의
령도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論理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黨의 유일사상체
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조선노동당을 수령인 김일성의 당으로 발전시키며, 또
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黨의 사상과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
할 수 있는 담보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는바, 당시엔 ‘당적 사상체계의 확립’이라는 概念으로 주창되었다. 이는 당 내에서 反宗派鬭爭을 종결짓는 당대표자회의(1958년 3월)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절대 지지하고, 黨政策을 무조건 관철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수령보다는 당을 前面에 내세웠다. 그러다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빨치산 세력의 지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수령의 역할문제가 크게 강조되면서, 당적 사상체계보다는 수령의 革命思想에 의한 사상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1970년 11월의 당 5차대회를 계기로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는 보다 확고히 수립되었으며 1972년의 사회주의憲法の 채택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을 통한 유일적 지도체계가 完成되었다. 그리고 黨의 唯一思想體系는 1973년 9월 黨5期 7次全員會議에서 김정일이 조직 및 사상담당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보다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사상부문 일꾼강습회’를 개최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에서 강력한 지침역할을 하였다. 10대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령(김일성)의 革命思想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 수령의 권위 설대화
- 수령을 충성으로 尊敬·추대
- 수령의 革命思想을 信念으로,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 수령의 교시집행은 무조건적 원칙준수
-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의 사상적 통일과 革命的 단결강화

- 수령의 공산주의적 풍모와 革命的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
- 수령이 부여한 정치적 생명을 충성으로 보답
-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조직規律의 확립
- 수령이 開拓한 革命偉業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

특히 10대원칙을 설명한 내용에서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 모든 사업을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등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수령의 唯一的 지도체제를 철저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다. 대중단체

사회주의체제에서의 大衆團體는 당과 국가기관과 함께 중요한 정치조직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선 지도적 정치기구로서 黨機關과 정책집행기구인 國家기관, 그리고 이러한 것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외곽단체로서의 大衆團體機關을 들 수가 있다. 집단주의체제에 있어선,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는 국가기관과 함께 大衆團體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대중단체가 광범한 대중속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조직이기 때문에 당은 이러한 외곽단체를 통해서만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현재 북한의 대중단체로는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도 된 ‘직업총동맹’(160만), 협동농장, 국영농목장 및 農村경리 부문에서 직접 활동하는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로 구성된 ‘농업근로자동맹’(130여만),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400여만), 여성들의 단체인 ‘민주여성동맹’(200여만) 등 4개 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중단체들은 중앙으로부터 말단 행정 또는 생산단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해당단체에 가입하여 동맹원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본 것 처럼, 수령-黨-인민대중은 북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서 자주적인 주체와 방법론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노동계급의 革命偉業에서 수령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것으로서, 黨은 수령의 혁명노선을 실천해나가는 정치적 무기이며, 인민대중은 그러한 수령과 黨의 지도를 받을 때만이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령-黨-인민대중의 관계를 전일체적이며, 지도와 대중과의 관계로 보고, 그들을 하나의 有機體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주체로 되어있는 수령-黨-인민대중이라는 相關關係속에서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權力構造를 구축하고, 이를 ‘혁명적 수령관’에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 黨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黨-인민대중의 문제는 북한의 독자적이며 독특한 집단주의사회의 구성과 그 발전방향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사회와 그의 발전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북한의 내적 논리에

의한 수령-黨-인민대중의 본질을 파악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역시 20세기 초반의 가장 독창적이고 特徵的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씨 (Antonio Gramsci 1891 ~ 1937)의 '지식인' 이론을 끌어들이고자 한다.³⁶⁾

그람씨도 마르크스주의를 실증주의와 모든 형태의 경제결정론에 대립시켜 정의했고, 더욱이 역사적 변화형성에서 의식과 인간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람씨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란 일종의 '絶對的 歷史主義'이다. 모든 형태의 사유와 행위는 전반적인 역사과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철학과 과학은 그것들이 역사의 '現實的' 발전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참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체안에 총체적이고 완전한 世界概念, 總體的인 철학과 자연과학 理論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소……완전한 실천적 사회조직을 낳기 위해, 즉 총체적이고 완전한 문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계관으로 규정된다.³⁷⁾ 따라서 현실은 歷史的이며 能動的인 人間主體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 철학, 마르크스주의는 주체에 대한 외적 관계에 存在하는 客觀的 방식의 지적 활동이 아니라, '實踐'을 구성하는 행위의 총체를 통해 창조된 것이다. 모든 요소는 전체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며, 그것들이 전체의 내재적 경향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참된' 것이다. 그람씨는 자연과 사회의 二元論을 거부하고, 자연이란 범주자체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고論했다. 따라

36) A.Swingewood, 사회사상사, 문예출판사, 1987.pp.243~53. 참조

37) A.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 Wishart, 1971, p.462.

서, 역사과정은 경제적 힘에 의해서 뿐 아니라, 集合的 形態로 조직되어 '경제의 추진력'이 되고, '客觀的 現實'을 형성하는 인간의지를 그 特徵으로 한다.³⁸⁾

이러한 主意主義的 (voluntaristic)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여, 그람씨는 지식인 이론을 展開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은 이데올로기와 同意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행사한다. 사회적 응집은 사회구조의 機能인 만큼, 지식인의 機能이기도 하다.

그람씨는 지적 활동을 특정 社會階層에 고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고, 지식인을 사회학적으로 정의했다. 그는 지적 활동을 사회의 모든 사람이 갖는 특성이라고 말한다.

지식인이란 용어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 용어가 적용되는 限界는 어디까지인가? 모든 다양하고 분산된 지식인의 모든 활동을 特徵짓는 동시에 이 활동을 다른 사회집단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구별시키는 통일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널리 퍼져있는 方法的 오류는 내가 보건대, 이 구별의 기준을 이 활동이……사회관계의 일반적 복합체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關係體制의 總體에서 찾지 않고, 知的 활동의 고유한 성격에서 찾으려는 데에 있는 것 같다……모든 인간이 知識人이다……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회에서 知識人의 機能을 하는 것은 아니다.'³⁹⁾

이렇게 그람씨는 '위대한 지식인'이라는 觀念論的 견해를 거부했다. 지식인은 지식생산과 노동기능을 통해 정의된다. 지식인은 항상 단순한 계급이익의 반영 이상의 것인 지식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 사회계층으로서의 지식

38) A.Gramsci, Selections from the Political Writings, London, Lawrence & Wishart, 1977. p. 35.

39) A.Gramsci, 1971, pp. 8-9.

인은 다른 사회집단보다 느리게 발전하며, 그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표현해 주면서도 동시에 全體人民의 문화적 전통을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그람씨는 지식인을 생산, 문화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조직화의 機能을 수행하는 자들로 규정한다. 그람씨의 지식인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회가 점차로 集中化를 향해 간다는 특수한 역사적 발전—국민교육제도, 지방 공공행정과 국가의 공공행정, 교회와 직업의 성장, 특히 국가기구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다. 그람씨의 견해에 따르면, 일정한 경제적 ‘조합’ 계급—자신의 협소한 이익이 전적으로 계급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는 계급—은 지배계급이 되려면 必然的으로 헤게모니 계급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은 토대적인 경제구조와 계급의 기초를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 제도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람씨는 사회계급이 그 자체의 계급으로부터 지식인을 發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論한다. 즉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사회계급은 자신의 비정형적 구조를 자신과 同盟한 지식인을 통해 변형시켜서 보편적 概念을 產出할 수 있는 동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된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이란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정의되는 동시에 意識을 통해 정의된다.

여기서 그람씨는 두가지 유형의 지식인으로 구별한다. 즉 有機的 知識人과 傳統的 知識人으로 구별한다. 유기적 지식인은 사회전체를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집단에 속한다. 즉 ‘正當化의 專門家’들로서 생산양식의 변동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有機的 知識人은 과거와의 철저한 斷切을 나타내는 概念을 생산한다. 유기적 지식인은 그 자신들이 계급을 이루지는 않고, 다른階級の 熱望을 표현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적 지식인은 ‘중단되지 않은 歷史的 連續性’의 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유기적 지식인과는 달리 生産樣式과

密接한 관계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배계급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전통적 지식인은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으로 연속된 과정으로 연결시키면서 사회의 틈바구니에 존재하는 매개적 계급이다.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과 전통적 지식인을 결합시키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집단은 정당이다.: ‘당은 자신의 기본적 기능에 嚴格히 依存해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 기능이란 자신의 구성부분—‘경제적’ 집단으로 태어나서 발전된 사회집단의 분자들—을 형성하여 이들을 資質을 갖춘 정치적 지식인, 지도자, 조직가로 變形시키는 기능이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의 유기적 발전에 고유한 모든 활동과 기능을 다룬다.’ 40) 경제적 사회집단은 두 유형의 지식인을 하나의 정당구조안에 融合시킴으로써만 ‘자신의 특수한 역사발전의 계기’를 넘어서서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적, 국제적 활동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上部構造의 관리자’인 지식인은 지배집단의 階級的 利益의 합계 利益을 표현해 준다는 이유에서, 대중이 ‘자발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觀念을 생산하여, 문화세계와 생산세계를 매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인은 사회적 헤게모니의 ‘組織家’이다.

그런데, 지식인은 이 헤게모니에 관련된 기능의 서열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점에는 세계관, 이데올로기, 理論體系를 생산하는 創造的 知識人이 있고, 맨 밑에는 既存의 헤게모니가 갖는 가치와 문화를 전파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적 지식인이 있다. 중간 범위에는 지배집단의 存續에 불가결한 조직적 지식인이 있다. 창조적 지식인의 역할은 그들이 수많은 階層이나 집단을 하나의

40) 앞의 책, pp.16~7.

‘역사적 블록’으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헤게모니에 대한 창조적 지식인의 同盟이 철회되면, ‘유기적’ 위기, 즉 권위의 위기와 사회해체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創造的 지식인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두번째 서열의 지식인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이 부차적 집단도 사회의 헤게모니가 적절히 작용하려면,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들도 지배적 知識人 블록에 吸收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로의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은 노동계급과 그 同盟集團간의 의식을 구체화시켜야만 한다. 즉, 그람씨는 黨概念을 「集合的 知識人」이라 규정했다. 黨은 대중의 창조적 生動性을 유기적 지식인의 조직적, 지도적 機能과 종합시키는 제도로 규정된다. 지식인은 社會變革에 必要하다. 위로부터 대중을 지배하는 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黨의 변증법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집중화와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사회가 어떻게 독자적인 시민사회와 自律的 지식인을 保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람씨의 이러한 규정으로도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집합적 지식인, 즉 黨은 대중의 활동과 문화에 구조화되어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그람씨의 일반적 틀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람씨적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에서의 수령론은 사회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權威主義의 표상이라 볼 수 있으리라

또한 이러한 북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의 內的 論理와 더불어, 外的 要因에 관한 고려도 간과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도, 오늘날 스탈린주의라 불리는 소련의 스탈린의 統治方式(테러체제, 테러체제 및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집단화의 관계, 테러체제의 리더쉽으로 나타나는 개인독재,

국가관료제의 성장) 41) 과 모택동주의, 특히 중국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의
'意識改造論' 42) 등이 주체사상 形成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본다.

41) A.W.Gouldner, "Stalinism: A Study of Internal Colonialism",
in M.Zeitlin(ed.),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A Research
Annual-, Vol.1, 1980, Greenwich, JAI Press Inc., pp.213-5,
참조.

42) 앞의 論文, pp.235~7. 참조.

V. 맺 음 말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에선 수령과 革命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르는 것이 과학연구의 기본방향이며, 주체적 입장에 선다는 것은 과학연구의 방법이다. 이 기본방향을 지키기 위해선, 과학이 노동자계급과 인민을 위한 봉사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革命과 건설에 貢獻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연구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다는 것은 이론추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석이며, 해결방책의 추구가 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과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sémiosis(signification process, 혹은 sign process로 해석함)의 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⁴³⁾

한 사회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조직형태에 필연적으로投入된 기호과정(sémiotique)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호과정의 시각에선, 의미현상을 ‘記號原料’와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호원료에 意味投入이라는 사회적 노동을 서술하는 것은 의미투입의 談話的 작업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 담화적 작업은 기호원료속에 나타난 표지를 통해 재구성된다. 다시 말해, 이 작업은 언제나 원료표면에 나타난 표지를 통해 재건하는 은밀한 작업이다. 생산체계의 모델속에서, 우리는 세 側面을 구분한다. 즉 생산, 유통, 인정(認定: la reconnaissance). 우리는 생산조건이나 인정조건과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기호성격들이 문제될 때, ‘標識’

43) E. Veron, "Sémiotique de l'idéologique et du pouvoir", in Communications, 28, Seuil, 1978, pp. 7~20. 참조

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기호성격들과 그 생산(혹은 인정)조건사이의 관계가 수립되었을 때, 이 표지는 생산이나 인정의 ‘흔적’이 된다.

사실상, 이 生産條件과 認定條件의 집합들은 결코 같지 않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의미생산의 기능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기호집합의 형태에 따라서, 생산과 인정 사이의 차이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쨌든, 우리는 세 측면 중 생산과 인정의 두 ‘문법’들과 언제나 상대하게 된다.

‘생성된 의미’는 그 의미를 생성한 생산체계와 관련해서만 파악된다. 말하자면, 생산, 유통, 인정의 조건들에 의해 구성된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만 파악되어진다.

生産體系의 意味理論에는 두개의 기본적 측면이 있다. 하나는 生産文法の 재건이고, 다른 하나는 認定文法の 재건이다. 의미의 사회적 생산은 실제적 효과가 무한한 기호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온갖 사회적 기능의 차원에서, 이 기호조직은 끼워맞추기 구조의 형태를 지닌다. 다른 텍스트 생산조건들의 일부가 됨에 따라서, 한 텍스트의 全 生産過程은 사실상 認定現狀이 된다. 반대로, 인정문법으로 표현된 의미효과들의 집합은 ‘생산된’ 텍스트의 形態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의미생산의 무한한 조직속에서, 모든 생산문법은 특정한 인정조건들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정문법은 ‘특정한’ 텍스트 생산과정의 형태하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 여기서 역사속에서의 텍스트 생산조직의 형태가 나타난다. 여기서 ‘特定한’이라는 용어는 決定的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문법들은 텍스트 속성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 生産體系속에서 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생산문법으로부터 (意味의 효과를 나타

내는) 認定規則들을 推論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산문법은 意味效果의 가능성의 領域을 규정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한 텍스트에 적용된 인정문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은 생산규칙에 비추어선 알아 낼 수 없다.

‘이데올로기’는 내용들의 목록이 아니라, 意味生成의 문법, 즉 기호원료속에 의미를 投入하는 문법이다. 따라서 한 이데올로기는 ‘내용’(의견, 태도, 혹은 표상)의 차원에 따라서 정의될 수는 없다. 한 이데올로기는 내용의 모습(예: 정치적 담화)으로 표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概念이 내용의 차원에서 정의될 수는 없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해진)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가 낳은 의미생산과의 관계는 Langue와 parole 생산사이의 무한한 의미생산을 고려하기 위해, 유한한 생성규칙체계를 서술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가 ‘실제적’, 그리고 ‘상상적’ 세계의 전체성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호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것’(l'idéologique)과 ‘권력’의 두 概念을 사회의 기호과정, 즉 의미생산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특정한 유통과정의 내부에서, 특정한 기호집합의 의미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인정의 측면을 볼 때, 우리는 ‘권력’의 문제를 상대하게 된다. 담화의 ‘권력’ 概念은 社會關係의 특정한 조직내부에 대해 갖는 그 담화의 效果를 가리킨다. 따라서 모든 인정은 생산을 낳고, 모든 생산은 인정체계의 결과물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특정한 기호집합과 그 사회적 생산조건 사이의 관계체제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의 概念은 ‘實際적인 것’이라고 주장되는 것의 歪曲이나 壘폐의 概念과는 아무 상관이 없

다. ‘과학/이데올로기’라는 문제는 사회적 의미생산의 영역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과학적 담화는 전형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다. 社會的 談話의 경우, 비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사회적 담화는 특정한 생산 조건을 지닌다.

그 대신, 意味效果의 차원에서 ‘과학성의 효과’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은 인정의 문제이지,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지식’이라 부르는 담화의미의 효과와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사이의 차이는 담화의 권력의 문제이다. ‘담화의 권력’의 概念은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조직속에서 談話가 갖는 효과를 가리킨다.

이 두 인정의 문법(과학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문법과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문법)의 구분의 기반은 다음과 같다.

‘과학성’의 효과는 일종의 ‘二重性’에 依存한다: 담화는 그 담화가 서술하는 실제적인 것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定立하는 것이다. 이 ‘二重的’ 관계는 모든 담화처럼 특정한 생산조건하에 있는 하나의 담화가 특정한 生産條件下에 있는 것으로 올바로 나타날 때, 일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지시체와 그 담화의 관계는 담화와 그 담화의 생성조건과의 관계로 표시된다.

반대로,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絕對的 談話의 효과이다. 즉 이 담화가 말하는 것에 대한 가능한 유일한 담화로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認定效果들의 양쪽 모두 생산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 담화의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이러한 구분이 담화의 權力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자. 한 談話가 權力을 가지기 위해선, 믿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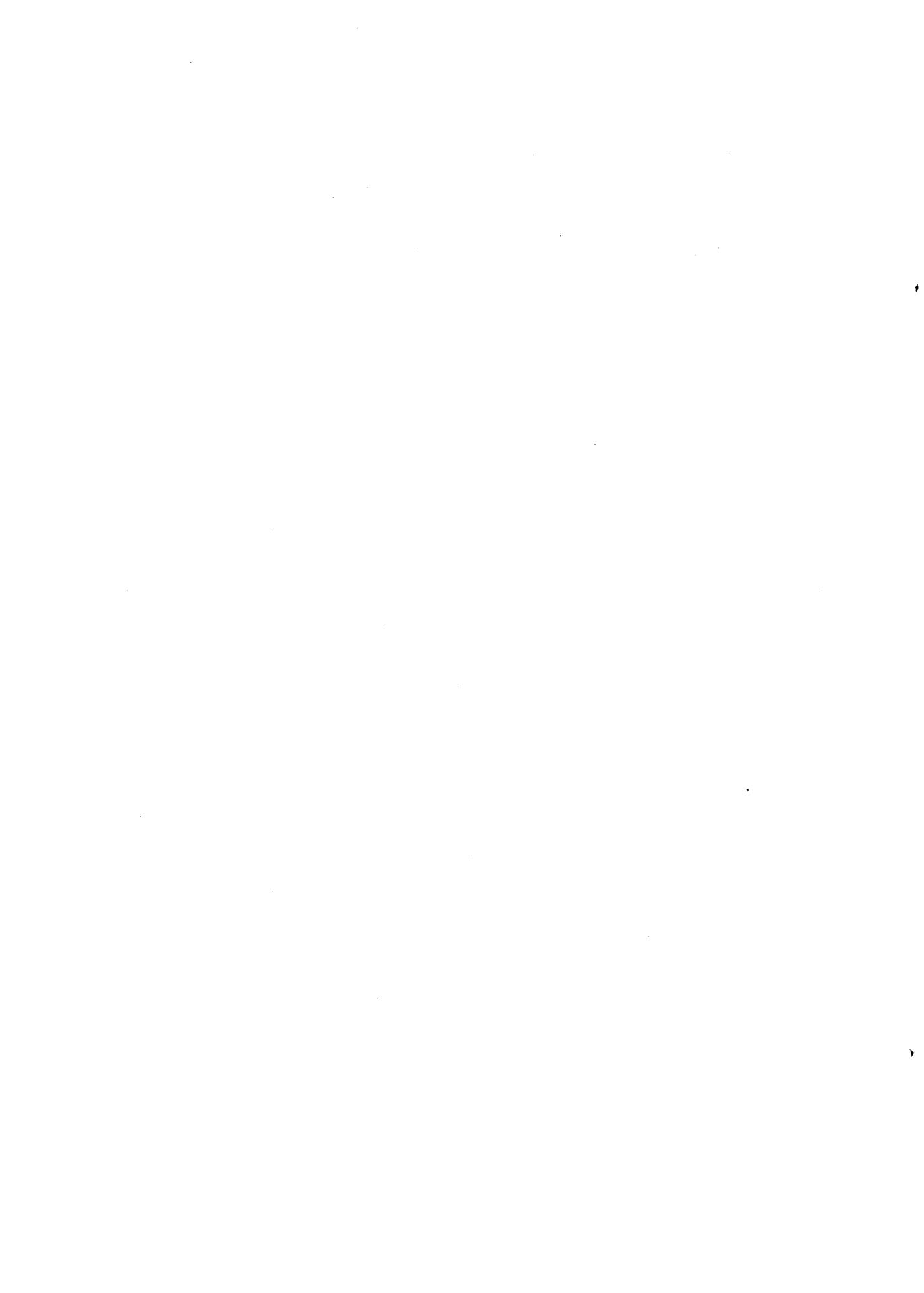
올로기적 효과'와 '과학성의 효과'에 內包된 믿음은 매우 다르다.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패러다임은 절대적 담화, 즉 종교의 담화이다. 반대로, '과학적 지식'의 담화는 절대적 믿음이 아닌, '상대적' 믿음을 유발하는 담화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의 영역은, 현실적으로 意味의 社會的 生産條件이 痕迹을 남긴 채 만든 의미와 관계된다.

위에서 살핀 시각을 북한의 唯一思想體系인 主體思想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과학 전반에 適用해 본다면, 主體思想을 熱烈히 信奉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겐 主體의 사회과학이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고, 거리감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겐 과학적 지식의 대상으로 머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일편, 『북한학계의 1920,30년대 勞農運動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9.
- 김남식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1989.
- 『북한전서』, 극동문제연구소, 1980.
-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文集』, 돌배개, 1988.
- 이병천편, 『북한학계의 한국近代史論爭—사회성격과 시대구분문제』, 창작과 비평사, 1989.
-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3.
-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84.85.87
-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백두연구소역음, 백두, 1988.
- Benton.T.,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풀빛, 1984.
- 『Communications.28』Seuil,Paris,1978.
- Gramsci,A.『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Lawrence & Wis-hart,London,1971.
- Gramsci,A.『Selections from the Political Writings』Lawrence & Wis-hart,London,1977.
- Swingewood,A.『사회사상사』 문예출판사, 1987.
- Zeitlin,M.(ed)『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A Research Annual—,Vol.1,1980,JAI Press Inc.,Greenw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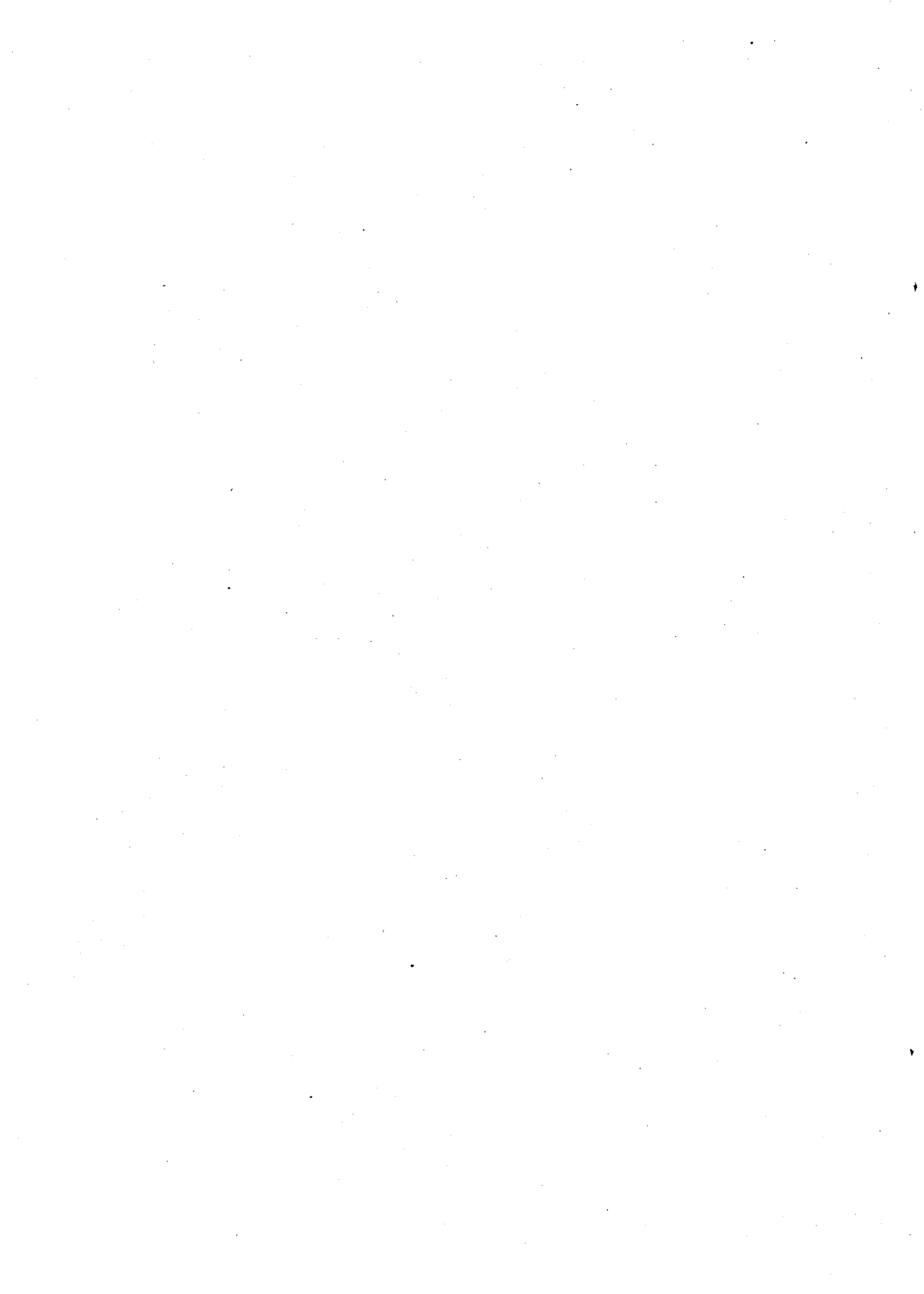


北韓 社會主義 體制와 老人

구자순 (한양대 교수)

〈 차 례 〉

- I. 北韓老人 研究의 必要性
- II. 北韓老人 研究을 위한 理論的 觀點
- III. 研究方法 .
- IV. 北韓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와 老人
- V. 要約 및 結論



I. 北韓老人 研究의 必要性

인간의 老齡化는 보편적 현상이다. 일찌기 老人과 社會를 연관시켜 觀察한 學者들은 노인들이 社會에 주는 영향과 社會가 노인들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 왔다. 의심할 바 없이 社會學者들은 現代社會에서 急增하고 있는 老齡層 人口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老人과 老齡化에 관한 現實과 眞實을 밝혀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先進國은 물론이고 開發途上國에서도 老齡層 人口가 急增하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發生하고 있는 문제들이 個人의 責任이라기 보다는 社會의 責任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문화에서는 잘 알려진 道德的·倫理的 習慣이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이 北韓에서 社會主義體制를 導入한 以後에도 存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 북한 노인 연구가 必要한가?

첫째, 최근 社會學 理論에서 社會變形과 노인들의 社會的 地位를 聯關시켜 본 理論들의 妥當性を 確認하는데 北韓은 중요한 資料를 提供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를 主導해가고 있는 社會主義 理念은 西歐의 科學·技術發達에 근거를 두고 있는 外來理念이다. 이것이 韓國傳統社會理念과 서로 어떻게 작용하여 북한 사람들의 日常生活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興味있는 研究가 된다.

둘째, 현재의 북한 노인들은 한국의 전통적 家族構造 속에서 出生 成長하였고, 동시에 社會주의를 體驗한 最初이며 마지막 世代 들이다. 이들은 1930년 以前出生者로 土地改革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社會주의체제 變革을 겪으며 지금의 老齡에 이르렀다. 이들의 삶의 역정은 바로 북한 社會主義 歷

史過程이며 산 증거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노인들의 生涯史를 알아봄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사를 알아볼 수 있다.

셋째, 既存해 있는 北韓 研究資料들을 보면, 특히 김일성 저작집은 儒敎이 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傳統的 生活慣習의 長點을 취하고 短點은 批判하는 論法을 구사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生活 속에는 아직도 우리의 傳統的 文化要素가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日常生活에서 表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傳統的 要素를 老人待遇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民族文化 單一化 내지 民族의 同質性을 確認해 볼 수 있다.

넷째, 현재 세계적으로 人口 老齡化추세가 進行됨에 따라 老人問題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對策이 커다란 關心事로 登場하고 있다. 특히 開發途上國家들의 工業化·都市化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家族解體 現象이 深化됨에 따라 私的 扶養기능의 현저한 弱化로 이에 代替한 政策補完이 긴급을 요하는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社會主義體制로 國家中心의 統治構造를 갖춘 북한 노인생활의 實相을 冷徹하게 살펴보는 것은 노인문제 연구에 중요한 資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동안 북한에 관한 研究는 주로 國際政治學分野나 國防學에 치중하여 있었다. 人間 老齡化는 普偏的 現象이다. 北韓社會의 노인들의 삶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므로써 北韓社會와 文化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높은 關心을 갖게 할 수 있다.

1) 최재현, "북한 사회이념 속의 전통적 요소" 제8차 한중학술회의 발표논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7년 10월.

II. 北韓老人 研究를 위한 理論的 觀點

現代社會에서 人口의 老齡化가 進行됨에 따라 노인의 社會的 地位를 사회 변동과 연관지어 考察해 온 學者들은 노인 低價値說과 노인의 疎外 問題를 提起해 왔다. 곧 그들은 近代化가 傳統農業社會에서 노인들이 누렸던 좋은 條件의 位置를 낮은 地位로 變化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 이러한 노인들의 地位下落을 설명하기 위하여 教育量의 부족, 새로운 職種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收入의 減少 등을 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觀察들이 妥當化될 수 있는 社會는 私有財産制度和 市場經濟制度가 認定되고 있으나 국가가 無能力者나 障礙者의 扶養 및 保護를 責任맡을 수 없는 경우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社會주의 經濟制度의 導入으로 급격한 變化를 겪고있는 社會에서도 노인들의 地位變化가 否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社會主義理念에 根據를 두고있는 財産의 集團化, 公平한 富의 分配, 모든 사람들의 均等한 物質的 保障側面에서 보면, 市場經濟下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三苦”의 문제, 즉 窮乏, 疎外, 病苦는 社會主義國家 노인들에게는 그 심각성이 덜 하다고 충분히 假定을 할 수 있다.

만약 전통적으로 韓國 社會·文化에서 노인들의 社會的 地位가 우리가 알고있는 바대로 높았다면 북한의 노인의 地位와 社會統合에 관한 연구는 노인社會學의 두 支配的인 理論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事例가 된다.

2) DONALD O. COWGILL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JABER F. GUBRIUM(ed.) LATER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POLICY. (SPRING FIELD, ILL) CHARLES C. THOMAS, 1974, PP. 123-146.

기 위하여는, 북한의 老後保障 政策을 살펴보아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家族, 職場, 老人福祉政策을 :중심으로 北韓老人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다
투어 보겠다.

Ⅲ. 研究 方法

研究對象者는 北韓老人이 된다. 그러나 現 政治的 狀況下에서는 이들에 대한 경험적 資料蒐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既存해 있는 북한에 관한 研究資料, 北韓에서 발행된 公式 出版資料들, 外國學者, 言論人 및 在外僑胞들이 現地 體驗을 쓴 記事, 紀行文 등의 資料를 利用·分析하였다.

北韓社會의 모습을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하여는 북한사회 形成過程을 歷史的으로 追跡하는 방법, 支配理念과 政策의 連繫性을 알아보는 接近, 그리고 現實의인 면에서 일상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構造的 성격, 社會관계의 類型, 文化體系(價值, 規範, 信念體系)를 관찰하는 質的인 接近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³⁾ 그러나 현재 우리의 政治的 分斷狀況下에서는 社會主義體制 導入이 북한노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一般化하기 위하여 資料蒐集이 거의 불가능하며, 불행하게도 할 수 없이 既存해 있는 資料들을 사용하여 理論的 觀點에 도입하여 展開 및 해석을 할 수 밖에는 없다. 앞으로 南·北韓 學者들 간의 學術交流가 이루어져 북한노인들의 삶의 世界를 現地調査 및 觀察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대체로 노인들의 地位는 주어진 社會에 있어서, 주어진 時期의 家族과 經濟制度에서, 노인들이 맺고있는 社會關係에서 행해지고 있는 役割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現 北韓老人의 지위를 알아보는데 가장 適合한 곳은 家族과 職場이다. 아울러 이들의 老後保障을 위한 국가의 役割을 알아보

3) 도흥렬, “북한의 계급정책과 階層構造,” 「北韓社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國土統一院, 1988,

이은죽, 北韓 小說에 나타난 社會的 價值觀과 類型 分析, 國土統一院, 1988.

Ⅳ. 北韓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와 老人

理論的으로 社會主義 理想은 젊은 世代와 老人 世代간의 直接的인 競爭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에 대한 扶養 및 保護責任을 모두 國家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이데올로기는 어느정도 國家의 政策을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급격한 지위하락을 防止하고 있을 것이라고 推測할 수도 있다.

傳統的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祖上崇拜 및 祭祀를 받들었으며, 儒敎的 倫理觀인 三綱五倫에서 나온 “長幼有序”와 孝의 이데올로기가 公·私를 불구하고 老人恭敬과 尊敬을 낳게 하였다. 現 北韓老人世代는 儒敎的 行爲 指針에 의하여 “아동기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들로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善行이고 美德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 社會主義 政權은 社會主義가 우선으로 삼고있는 革命課業을 完遂하기 위하여 전통적 儒敎理念과 社會主義理念을 서로 強化시켜 社會主義體制 確立期間 동안 노인들의 위상을 보호해 주었을 것이라고 假定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社會主義 革命은 北韓內에서 自生的 生産力 發達을 基盤으로 한 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라, 政治的 및 軍事的 次元에서 소련으로부터 强要된 變革이었기 때문에 中央集權的 意思決定體制인 김일성政權의 強力한 國家統治理念은 모든 北韓사람들의 日常生活 全般을 統制해 왔다. 이에 따라 자연히 過去의 韓國 傳統理念과 現在의 社會주의이념 사이에 發生되는 緊張, 葛藤, 矛盾을 해결하기 위하여 國家政策의 一環으로 노인들의 扶養 및 保護問題를 위한 社會的 관계와 物質的 環境을 形成해 주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發生될 수 있는 문제로서의 世代간의 이

데올로기 꾀리는 국가에 의하여 해결이 推進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現 北韓 社會組織에 있어서 強力한 中央集權的 政治的 특성을 考慮해 볼 때 우선 北韓社會에서 老人層에 대한 태도가 北韓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의 傾向에서 어떻게 形成이 되었는지를 世代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1. 北韓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와 韓國 傳統的 世代 이데올로기

傳統的으로 韓國 老人들은 단지 年齡 때문에 社會로부터 權威를 賦與받았고 恭敬과 孝를 받으며 社會의 높은 地位를 占有하고 있었다. 이는 家父長的 家族體制에서 男性 最年長者가 가장 높은 地位와 權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인은 그 다음으로 높은 地位를 갖게 되며, 家事 일을 다스렸으며, 姑婦간에도 主從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家父長的 擴大 家族에서 財產所有 및 統制가 老人에 의하여 행하여졌을뿐 아니라 長子 相續制에 의하여 子女 중에서 長男이 相續을 하게 되며, 年齡에 의한 爲計秩序가 確立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모두 儒教的 理念인 “長幼有序”에서 그 根源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體制가 들어선 이후에 世代 이데올로기의 變化 여부와 그 趨勢를 다루어 본다는 것은 老人의 地位를 把握해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北韓노인들의 전통적 生活上의 變化 여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社會主義의 革命이 住民들의 日常生活에 어떠한 變化와 影響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現 北韓 社會主義體制下에서 老人들이 어떻게 待遇를 받고 있느냐 하는 바는, 北韓이 社會主義의 국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順應하여 採擇된 政策의 發顯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 北韓의 社會制度的 變化가 老人들에게 주는 否定的 影響은 즉, 地位下落은 北韓社會의 政治的 經濟的 統合過程에서 附隨的

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既存의 年齡中心으로 이루어진 社會的 關係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동시에 이에 따른 老人扶養 및 保護問題를 均等히 다루려는 政策들이 社會主義政權 設立 및 強化를 위하여 採擇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김일성 主導下의 北韓社會 變化는 世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北韓的 社會主義國家 創造 및 그 建設過程을 보여주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北韓의 社會主義 革命 遂行 및 發展段階別로 北韓社會의 變化過程에서 나타난 諸般政策을 중심으로 段階別로 區分지어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와 世代 이데올로기 간의 相互作用關係를 살펴 보았다.

그간 學者間에 北韓 社會主義 建設過程段階 및 時期別 區分이 一致되고 있지 않았다. 本 研究에서는 大略적으로 老人들의 삶에 影響을 주는 政策抬頭를 중심으로 하여,

1. 初期段階(1945年~1969年): 社會主義的 物質的 土臺形成과 김일성 主體思想 定立段階
2. 2次段階(1970年~1980年): 社會主義 完成과 김일성 主體思想 擴散時期,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父子 世襲 定立初期
3. 3次段階(1981年~現在): 김일성·김정일 父子 世襲體制 確立期인 세段階로 나누어 보았다.

(가) 初期段階(1945年~1969年)

急激한 社會主義 革命過程을 겪은 北韓에서 革命初期段階의 傳統·文化抹殺은 傳統的 老人文化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變化는 傳統的으로 높았던 老人들의 地位下落일 것이다.

韓國社會의 社會關係에서 儒教理念에 立脚한 年長者 優待는 家族內에서는 父

母의 子女에 대한 絶對的 權限行使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子女의 配偶者選擇에 있어서 父母의 莫強한 決定權行使, 財産分配權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평생을 두고 孝를 행하고 孝子와 烈女를 기리는 이야기들이 韓國社會에서 日常生活의 模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더 나아가 社會 전반에서는 젊은이와 老人간의 秩序에 應用이 되며 一般化되어졌다.

그러나 1945年 解放以後 北한의 社會主義體制 導入 및 確立은 이러한 世代 이데올로기의 弱化를 가져 왔으며 새로운 社會關係 秩序를 탄생시켰다.

첫째, 1946年 3月의 土地改革과 8月의 重要産業 國有化措置가 取해쳐 대부분의 大企業이 沒收되었다. 財産 私有財 및 相續制度가 廢止되었고 이에 따라 家長의 權威는 弱化 내지 無意味해지고 家族的 經濟關係가 喪失됨으로써 財産分配라는 觀念이 사라지게 되었다. 1953年~1958년에는 勞動黨 第6次 中央委員會에서 農村 集團化를 決定하여 農業協同化를 추진하였다. 都市에서는 個人 商工業에 대하여 集團化가 實施되어 全面 國有化가 되었다. 이리하여 傳統的 家族制度의 物質的 基盤은 마침내 무너졌다.

이에 따른 家族中心의 經濟的 基盤과 家父長的 爲計秩序의 破壞는 바로 大家族制度의 崩壞였고, 새로운 家族概念 즉, 社會民主的 家族概念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父子關係의 변화가 나타났다. 父子간의 孝道와 愛情이라는 倫理는 낡은 封建的·儒教的 慣習이며, 설령 父母라 할지라도 勞動黨原則과 김일성 首領의 敎示와 黨中央의 指導에 違背되는 行동을 했을 때는 辛辣하게 비판하고 所屬團體 幹部에게 보고하는 것이 子息으로서의 道德的 規範이 되었다. 이로써 過去 父子關係의 형태를 軸으로 했던 長幼有序와 孝의 관계도 변화했다. 또한 老人과 先輩에 대한 尊敬의 尺度는 그가 階級鬭爭과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얼마나 貢獻을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⁴⁾ 이러한 反儒敎運動의 成功은 北韓社會에서 老人의 地位를 下落시켰음을 알 수 있다.

둘째, 8.15 이후 소련군의 駐屯과 함께 소련으로부터 現代技術 導入에 따른 産業化가 傳統 農業·經濟關係 및 方式의 崩壞를 가져옴으로써 共產黨指導者와 젊은層이 중심이 되어 社會改革이 推進되었다. 특히 日帝 植民地地下의 經濟的 搾取에 따른 落後와 6.25로 인한 荒廢한 경제적 條件 속에서 物質的 土臺構築을 위한 重工業 優先의 社會主義 工業化推進은 老壯層들이 가지고 있던 知識과 技術을 쓸모없는 것으로 푸대접받게 함으로써 權力 喪失을 가져왔고, 그 대신 젊은層들이 새로이 習得한 技術을 높이 評價해줌으로써 이들의 地位上昇을 招來하였다. 社會主義 革命運動은 社會主義敎育과 함께 現代敎育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前例없던 指導者役割을 賦與해 주었다. 따라서 북한 공산당 새 政權下에서 젊은 世代들의 政治的 參與는 活發하고 積極성을 띠게 되었다. 青年運動이 組織化되어 展開되었으며, 젊은 世代는 새로운 社會建設에 動員이 되고 家族의 監督이나 參見으로부터 멀어졌다. 젊은이들은 權力을 갖게 되고 自尊心을 갖게 되고 保守的인 既成 父母世代에 對하여 政治的 캠페인을 主導하게 되었다. 父母들의 土地改革 反對, 集團農場參與 反對, 혹은 며느리나 사위 選擇權 喪失 등에 反對하는 行爲들이 反社會主義的인 것으로 浮刻되면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직장일이나 지역사회생활에 보람을 느끼며 家族內에서나 法的으로도 世代間의 地位差가 없게 되었다.

특히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社會保險法, 婚姻關係 法規들이 制定 施行됨

4) 内外通信, 内外通信 綜合版 34, 1986.7.1 ~ 12.31, p.445.

으로써 젊은층들의 結婚 및 離婚 등에 대한 獨自的 決定權行使는 家庭에서의 家父長的 爲計秩序를 崩壞시켰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23條에 보면 “ 婚姻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밑에 있다”로 되어있고 23 조 法令 4條를 보면, “ 結婚할 本人들의 同意없는 非自由的이며 強制的인 結婚을 禁止한다”로 되어있다) 1947年에는 父母·子女關係를 象徵하는 戶籍制度를 없애고 身分登錄制度인 公民證制度를 實施하였다. 公民證의 唯一番號制는 전통적 家族概念과 家族關係를 弱화시켰으며, 18세가 넘는 가족성원은 「 個體的存在」로의 새로운 法的位置를 賦與받았다.⁵⁾

또한 家族法은 「 父母가 子女의 教養을 主되는 內容으로 하는 父母의 權利를 보호하며 동시에 國家는 父母가 子女들을 올바르게 교양할 것에 관한 嚴格한 要求를 提起하여 父母가 親權을 實現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즉, 子女의 利益에 矛盾되게 親權을 行使할 때는 그 父母는 親權을 剝奪당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革命 初期段階에는 傳統的인 代를 잇는다는 家計觀念도 사라지게 되었다. 家族成員 개개인은 독자적으로 생산활동에 동원되고 전통적 家長의 權威는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 공산당이 構造的으로 變化·發展시키려고 했던 당시 北韓社會는 轉換期의 混亂을 가져와 不安定한 狀態에 있었다. 이런 狀況 속에서 舊體制의 破壞 및 社會主義的 發展을 誘發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網을 組織하게 되고 男女老少에 關係없이 劃一的인 價値體系가 一時에 強要되어, 결국 傳統的 文化遺産으로서의 世代이데올로기가 弱화 내지 崩

5) 이태영, 「北韓 女性」, 실천문화사, 1988.

壞되었다.⁶⁾

(나) 2次段階(1970~1980)

1945~69年 이 期間동안 문자 그대로 젊은층의 「地位上昇」이 이루어진 이후인 1970年代부터는 父母의 權威를 復活시키는 작업이 進行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劃期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970~80年은 그들의 宣傳을 그대로 表現한다면 「社會主義 完成을 위하여 理論적으로 體系화된 主體思想을 擴散하고 技術革命, 思想革命, 文化革命을 통하여 經濟的 自立, 科學技術 發展, 社會主義的 文化建設을 이룸으로써 本格的인 社會主義 建設事業에 들어간다」는 時期이다.⁷⁾ 김일성 主體思想을 支配이데올로기로 삼아 북한주민의 행동지침으로 强要하는 時期이다.

1970年 11月 勞動黨 5次大會에서는 經濟6個年計劃을 策定하며 「3大革命小組運動」을 展開하고 김일성·김정일 父子의 世襲體制 構築을 위한 作業이 시작된다. 사회주의 理念과 政策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보다 훌륭한 지도자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며 指導者의 權限과 權威를 확대시키는 일이 必須的 要件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北韓政權이 權威主義的이고 長幼有序의 전통적 文化를 가진 곳에서 非人間的인 制度나 과정에 충성심을 갖도록 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아차리고 김일성首領 개인에 대한 忠誠을 통해 北韓政權에 대한 正當化를 우리 民族固有의 傳統文化에 根據한 政治社會化 方式에서 찾은 것을 알 수 있다.

6) 이병혁, “北韓 社會의 이데올로기와 커뮤니케이션” 「北韓社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國土統一院, 1988, pp. 49-88.

7) 이태영, 「北韓女性」, 실천문학사 1988.

이러한 背景을 끼고 1970年代에 들어와서 북한사회의 公式的 이데올로기는 老人世대의 權威에 대하여 一部를 認定해주기 시작하면서 二重性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들의 기억을 통하여 지난날의 鬪爭과 革命業績에 대한 것을 젊은 世代들에게 특히 6.25를 體驗하지 못한 世代들에게 傳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老人들은 傳統뿐만 아니라, 日帝彈壓, 새로운 북한사회의 탄생과 成長 및 鬪爭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價値를 認定받게 되었다.(또한 1970年代부터는 北韓住民들은 마음놓고 祭祀를 지내게 되었다.)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970년에 主體思想에 立脚한 3大革命路線을 취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中·壯年の 反動分子들을 監視하고, 父母나 스승까지도 批判하도록 強要를 받게 되는데, 이는 思想革命의 主對象이 現在 北韓住民 속에 깔려있는 낡은 思想인 부르조아思想, 修正主義, 事大主義, 教條主義,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保守主義, 消極性, 要領主義, 形式主義 등 非共產主義的 思想인데, 後繼體制와 관련하여 權力構造의 世代交替와 社會主義體制 強化를 위한 變革의 수단으로 採擇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⁹⁾ 老人世代들은 그 어느 世代보다도 이러한 思想을 가지고 있는 舊世代로 看做하여 監視對象이 된 것이다. 즉, 世代間의 思想的 差異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世代差別이 없어지자 젊은층들이 老齡期에 있는 共產黨 指導者級 背斥 내지 경멸이 북한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교롭게도 김일성 主體思想 強化가 김정일 後繼體制 구축을 위한 老幹部 및 舊世代에 대한 改造 또는 除去作業 또한 促進되었

8) 서동익, 「北에서 사는 모습」, 北韓研究所, 1987.

9) 도홍렬, "北韓의 階級政策과 階層構造", 「北韓社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國土統一院, 1988, pp. 3-47.

다. 이는 解放以後 世代들이 社會的 進出을 하게 되므로 <代를 이은 革命> 과 <革命偉業의 繼承>을 강조하면서 공공연히 金日成 以後 後繼體制의 준비작업이 推進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빨치산出身으로 불리우는 舊革命幹部들의 年老化에 따른 必然的인 戰後世代의 登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1971年 6월에 개최된 <사로청> 6次大會에서 金日成은 革命의 과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世代는 바뀌어 解放後 世代들이 나라의 主人으로 登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革命의 代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 이른바 <世代交替論>, <革命承繼論> 입장을 밝혔다.¹⁰⁾ 여기서 우리는 傳統慣習인 “父子世襲”의 名分을 <革命世襲論>, <世代交替論>, <血統繼承論>, <歷史的 準備段階>로 金日成·金正日 父子間의 世襲體制를 合理化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1971年 7月, <勤勞者> 7號에 掲載된 論說에서는 아버지가 다 못한 革命偉業을 아들이 함으로써 代를 이어가면서 實現될 수 있다는 主張을 통해 金日成 後繼世襲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이와 함께 북한은 그들의 宣傳·煽動資料 가운데 父子世襲을 비판할 素地가 있는 資料들을 除去하기 시작하였다. 즉, 社會科學院이 1970年度에 만든 <政治用語辭典>에는 <세습>이란 用語를, “세습제도는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職位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 받도록 법적으로 固執시킨 反動적 제도”로 비판한 內容이 收錄된 바 있으나,¹²⁾ 1973年度에 만

10) <사로청> 6차대회 金日成의 演說, “靑年들은 代를 이어 革命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 중앙년감, 1972, p.285.

11) “모든 靑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繼承者로 튼튼히 키우자”, 근로자 7호, 1971. 7, p.15.

12) 정치용어사전, 社會科學 出版社, 평양, 1970, p.414.

든 <정치사전>에서는 <세습>이란 단어 자체를 收錄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5年 10月頃부터는 김정일을 後繼者로 浮刻시키기 위한 資質禮讚論을 펴기 시작하고 김정일의 이름을 直接 言及하면서 후계자로 指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마치 王朝時代에 王이 모든 사람들의 世界觀의 核心으로 존경받던 바와 비교될 수 있을뿐 아니라, 家父長權 繼承 내지는 王位繼承과 비슷한 權威移讓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게 된다.¹³⁾

(다) 김일성·김정일 父子世襲體制 確立期(1981~現在)

1970年代의 김일성·김정일 父子世襲體制 構築作業은 마침내 1980年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6次大會에서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으로 選出됨으로써 公式化되었다. 따라서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世襲體制 確立期와 함께 全 北韓社會를 主體思想化 하였다.

이 時期에는 社會主義 導入初期에 破壞하려던 家父長的 家族制度下의 家族의 和合 및 世代間의 依存이 社會主義 目的達成에 附合하는 社會公同生活의 規範을 지키는 社會形態로 강조가 되고 있다.¹⁴⁾ 家族主義에 대하여도 長點을 취하고 短點을 버리려는 政策을 驅使하고 있어서 敬老思想의 實踐이 일상생활에서 規範化되어 나타나고 있다.¹⁵⁾ 특히 敬老思想의 發想은 3大革命 期間 동안(1970~1980)에 權威에 대한 拒否가 生産性を 切減시켰기 때문에 青年層 인테리 중심으로 青年層 訓練이 다시 學校나 工場에서 강조됨으로써, 동시에 反革命的으로 낙인이 찍혔던 老人들을 封建社會에서 오랜동안 고생을

13)최재현, 앞의 책

14)김철희, 주체의 인생관, 社會科學 出版社, 1984, p.137.

15)최재현, 앞의 책

했던 사람들로 사회주의 질서를 渴望했던 世代로 革命英雄으로 찬양을 하고 이들의 社會主義 革命經驗을 젊은 世代들에게 革命教育을 시키도록 권고를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茶飯事的인 북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變化는 老人들에 대한 尊敬과 侮辱의 兩極을 왔다 갔다 하면서, 世代 이데올로기의 多樣性を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公式的 이데올로기의 相反的 特性은 우리 傳統慣習인 老人優待가 存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지위는 사회제도 속에서 公式的 發表 보다는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經驗 속에서 찾아보아야 될 것을 示唆해주고 있다.

2. 北韓社會의 老齡人口의 特性

人口 老齡化가 社會문제로 대두된 것은 西歐에서는 世界 第2次大戰 後에 시작되었으며 最近에는 開發途上國에서도 이의 深刻성이 높아지고 있다.¹⁶⁾ 이러한 現象은 世界的으로 醫學의 發達과, 經濟的 發展으로 인한 意識構造의 變化 및 家族計劃事業에 따른 出生率의 低下로 低年齡層 人口의 增加率이 減少된 때문이다.

老人의 定義는 사회마다 다르다. 이는 각 사회의 法律, 慣習, 長壽의 程度, 老人을 위한 公共機關의 프로그램 등에 따라 多樣하므로 一律的인 規定을 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소련은 노인을 男性 60세以上, 女性 55세이상으로 規定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法律上으로는 60세以上, 社會保障 프로그램에서는 女性 62세, 男性 65세以上으로 각기 달리 規定하고 있다. UN에서는 60세

16) U.N. "AGING AND THE DEVELOPING WORLD", POPULI vol.11, №2, 1984, pp.13-20.

를 老人으로 規定하고 있다. 한편 學者들은 通例로 65세를 老人의 年齡基準으로 삼고 있다. 東洋圈에서는 十二支干의 다섯번째가 되는 60세 이상을 老人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인구는 解放 직후인 1946년에 925만명이었으나, 1985년에는 大略 2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6.25 動亂 以後부터 1970年度까지는 人口增加를 위한 社會政策을 추진해 왔다. 북한에서는 1956년부터 1970년까지 베이비·붐 現狀이 나타나면서 人口증가가 加速化되기 시작했다.

<표 1>을 보면 南·北韓 모두 1960년부터 1985년까지 60세 이상의 老齡人口는 漸進적으로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興味로운 것은 南·北韓 모두 年少人口層 比率이 減少하고 있는 反面, 生産年齡人口와 老年人口는 增加趨勢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出生率의 低下趨勢와 함께 年少人口層의 比率은 減少할 것이며, 老年人口層의 比率은 점점 증가될 것을 豫測하게 해 준다.

북한에서는 1970년까지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産兒獎勵政策을 펴 왔으나, 1972년부터는 김일성이 子女는 3名程度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産兒制限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 黨에서는 인구가 많아지면 國土가 좁아지니까 적게 낳으라고 強調하고 있다.¹⁷⁾

현재로서는 北韓人口의 出産率과 死亡率의 변동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실제 人口통계치 入手가 어려워 精確한 分析을 할 수 없는 實情이나, 世界的으로 平均壽命 延長과 出産率의 低下는 年少者 人口層의 比率을 낮추어 준

17) 김만철一家, 北韓實態證言錄, 國土統一院, 1987.

<표 1> 南·北韓 年齡區分에 의한 人口構造 (1960~1985)

區分	1960		1970		1975		1980		1985	
	南·北韓	北韓	南·北韓	北韓	南·北韓	北韓	南·北韓	北韓	南·北韓	北韓
全體人口(千名)	25003	10526	31923	13892	35281	15853	38124	18025	41258	20385
年少人口(千名) (0~14歲)	10487 (41.9)	4600 (43.7)	13431 (42.1)	6099 (43.9)	13318 (37.7)	6599 (41.6)	12961 (34.0)	7271 (40.3)	12889 (31.2)	7881 (38.7)
生產年齡人口 (15~64歲)	13684 (54.7)	5576 (53.0)	17440 (54.6)	7312 (52.6)	20689 (58.6)	8695 (54.8)	23710 (62.2)	10120 (56.1)	26706 (64.7)	11769 (57.7)
老年人口 (65歲以上)	832 (3.3)	350 (3.3)	1052 (3.3)	481 (3.5)	1273 (3.6)	558 (3.5)	1453 (3.8)	634 (3.5)	1664 (4.0)	735 (3.6)
60歲以上人口	1320	566	1726	766	2055	885	2277	1005	2665	1166 (5.7)
期待壽命(歲) (男) (女)	53.6 56.9	53.6 56.9	56.0 59.4	56.0 59.6	59.2 64.0	59.2 64.0	62.4 68.8	62.4 68.8	64.6 71.0	64.6 71.0
性比 (65歲以上女性100 名當男性率)									66	72
年少人口扶養指數(%)	76.6	82.5	77.0	83.4	64.4	75.9	54.7	71.8	48.3	67.0
老年人口扶養指數(%)	6.1	6.3	6.0	6.6	6.2	6.4	6.1	6.3	6.2	6.2

資料出處：UN: WORLD POPULATION PROSPECTS·ESTIMATES &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4(N.Y.:1986) pp. 279-280.

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북한은 産兒制限政策 實施와 함께 老齡層 人口 增加를 豫測할 수 있다.

南·北韓 모두 65세 이상의 人口層에서 女性이 男性의 數를 훨씬 증가하고 있다. 1985년에 女性 100여명當 男性은 南韓이 66명, 北韓이 72명으로 女子 老人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1 참조> 현재 한국에서 男性比가 낮은 이유는 戰爭에 그 緣由를 두고 있다. 기대수명은 UN推計値에 의하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의 醫療保險制度가 “全人民 無償治療”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 南韓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닐것이라고 推測이 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在美學者인 김동수 교수는 북한의 평균 수명이 74세라고 案內員이 말해 주었다고 적고 있다.¹⁸⁾ 만약 이 資料가 信憑性이 있다면 북한의 死亡率이 훨씬 낮아졌으리라고 推測할 수 있다.

老年人口 扶養指數는 老年人口 扶養을 위해서 生産年齡 人口가 맡는 負擔 정도를 나타내 준다. 이는 老年層과 生産年齡層의 比率로 老年人口(65세이상) / 生産年齡人口(15세~64세) × 100으로 算出된다. 1985年 現在 南·北韓 모두 老年人口 扶養指數가 6.2로, 즉 15~64세 人口 100명이 65세 이상의 老年人口 6.2명에 대하여 扶養負擔을 지고 있음을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가 周知할 바는 老年人口 扶養指數는 낮지만 年少人口 扶養指數가 높기 때문에, 兒童人口는 老人이 家庭이나 地域社會로부터 받는 扶養 程度에 影響을 끼친다는 것이다. 老年層 人口의 住居地域別로 보면 南韓은 1985年 現在 經濟企劃院 人口센서스統計에 의하면 全體 老年人口의 68%가 農村에 居住하고 있으며, 젊은層 人口의 “離農向都”로 農村人口의 高齡化現象이 나타나고 있

18) 김동수, “北韓의 現實과 統一課題”, 「分斷을 뛰어넘어」, 1988, p. 242.

다. 북한에서도 역시 農村人口의 高齡化現象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村人口의 70%가 女性이고, 男子들은 中年 以上이고, 젊은 青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¹⁹⁾

老人문제는 무엇보다도 老人 人口增加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南·北韓 모두 1960年代부터 老人 人口增加가 加速化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世代(1955~1970 出生世代)가 65세가 되는 2020年 以後부터는 老人人口가 10% 以上으로 先進國型으로 豫測된다.

3. 北韓 老人과 家族

한국 노인들에게 家族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儒敎觀念의 孝와 敬老思想이 완전히 정교화되는 곳이 家族이며, 婚喪祭나 世代間의 資源의 交換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同居에 따른 葛藤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직장에서는 世代들 간에 일어나는 葛藤을 避할 수가 있다. 그러나 家族에서는 특히, 多世代 同居形態에서는 젊은이와 老人들 간의 日常生活에서의 接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本 研究에서는 老人과 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대가족의 存在 適合性 側面에서 다루어 보겠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統治이데올로기가 傳統 확대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具體적으로 適用될 때 老人의 家族內 地位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疑問이 提起될 수 있다.

많은 가족 사회학자들은 사회주의 國家에서 家族을 國家나 黨의 從屬的制度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統治이데올로기가 家族의 利益 보다는 國家의 利

19) 공산권문제연구소, 「北傀治下の 住民生活」, 1982.

益을 優先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集團意識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國家權威와 家族權威 간에 발생하는 葛藤은 모든 사회에서 存在해 왔다. 그러나 어느 國家도 그 社會의 전통적 家族理念에 挑戰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家族을 國家에 從屬化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老人들의 家族生活만은 從屬化시킬 수가 없었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假定을 북한에 適用해 봄으로써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에 根據한 강력한 國家觀과 韓國傳統家族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老人의 가족관계를 다룸으로써 밝혀보려고 한다.

(1) 北韓老人의 同居形態

老人들의 同居形態 變化는 社會構造變化에 의한 副産物이며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老父母 扶養 및 保護가 “孝”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일상생활의 規範 및 信念으로 當然視 받아들여져 왔다. 노인들은 家族內에서 특히, 長子相續制에 의하여 長男 家族과 同居生活를 하면서, 扶養과 保護를 받는것이 日常生活의 일부로 認識되어졌다.

現在로는 북한노인의 同居形態에 관한 정확한 통계적 자료가 없는 것 같다. 단지 이태영의 「북한 여성」에 의하면 북한 노인들은 1950年代까지는 대부분이 子女와 同居하였으나, 1960年부터는 줄었다가 1960年 後半부터는 49%로 上乘하나 1970年代에는 24%가 子女와 同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都市와 農村이 똑 같은 樣相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대한 확실성 내지 出處가 밝혀져있지 않아 信賴性이 缺如되어 있다. 現在로서는 既存해 있는 國家의 家族政策을 中心으로 時期的으로 推測해 볼 道

20) 이태영, 「北韓女性」, 1988, pp. 131-132.

리밖에는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導入時期인 1947年 家族法 改正以後 확대가족형태를 지지시키려고 하였으며, 同時에 傳統的 結婚 方式이나 生活方式을 廢止시켰다. 그리하여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조선 가족법 1조) 변경시켰다. 父母의 子女結婚에 대한 統制나 決定權이 弱화되었고 結婚과 동시에 分家로 인한 核家族形態가 形成되었다. 또한 社會主義國家 形成段階에, 특히 6.25 動亂 以後에, 重工業化와 軍隊의 확장으로 새로운 職種이 대거 創出되었으며 이에 따라 젊은이들의 就業으로 인한 分家 居住가 활발히 일어나며 노인들의 단독가구가 증가하였으리라고 推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가족을 모두 核가족으로 破壞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政策實現 같은것은 없는것 같다.

북한에서는 都市와 農村 간에 老人同居形態에는 差異가 없으며 단지 그 理由만 다를 것이라는 假定이 성립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農村에서는 첫째, 농업의 기계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생산단위로 存在할 必要性이 要求되어 확대가족이 存續하였을 것이고, 둘째, 북한 農村에서는 移住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로 확대가족을 이루거나 과히 멀지않은 이웃에 子女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推測이 된다.²¹⁾

都市에서는 개인 商工業의 集團化에 의한 經濟改革이 家族의 經濟的 機能喪失을 招來하였으나, 住宅難과 都市人들의 賃金 勞動化로 확대가족이 老人과 家族에 더 效率的이었기 때문이다. 興味로운 것은 北韓勞動黨이 계속하여 부모의 家父長的 權威, 仲媒結婚, 婚喪祭에 대한 거대한 儀式 등을 非難을 하

21)이환구, 「分断 40年 北의 實相과 虛相」, 韓國出版公社, 1985, p.293.

여오다 1970年代부터는 敬老思想과 함께 오히려 獎勵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北韓 紀行文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老人들은 子孫들과 함께 生活하고 家庭內에서 집을 치우기도 하고 孫子女도 봐주고 있다 한다.²³⁾ 김만철 씨 夫人 최봉례씨에 의하면, “남편 말에 불복종하고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老人은 子女와 同居하는 것으로 認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아직도 長男이 父母를 모시고 있으며, 扶養者로서의 扶養費 뿐만 아니라 年金도 長男이 타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²⁵⁾ 扶養해 줄 子息이나 緣故者가 없는 老人들은 北韓 勞動法 제 8장 78조에 명시된 대로 養老院에 들어가서 無料로 扶養을 받는다.

以上の 資料들로 미루어 보아 북한에서는 아직도 傳統的 家父長的 확대가족 形態가 現實的으로 存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 社會主義 理念은 韓國 傳統 家父長的 家族의 근본적 特性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父子 世襲體制 定立에 利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여기서 參考로, 南韓 老人의 同居形態를 살펴보면 比較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年度 人口保健研究院의 全國對象 標集調査에 의하면 아직도 80% 정도의 老人들이 子女와 同居하고 있으며, 都市가 農村보다 子女와 同居형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農村에서 子女들이 都市로 移住한 결과이

22) 서동익, 앞의 책

최재현, 앞의 책

23) 양은식·김동수外, 「分斷을 뛰어넘어」, 중원문화, 1988.

24) 김만철一家 「北韓實態證言錄」, 國土統一院, 1987.

25) 김만철一家 「北韓實態證言錄」, 1987.

26) 임종권外. 「한국노인의 生活實態」,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며, 老人 단독세대가 農村에서는 23.3%, 都市에서는 15.3%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 北韓 老人과 子女와의 관계

家族관계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역시 父母-子息關係이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道理가 있어서, 父母는 “慈”를, 子息은 “孝”를 통하여 세대 간에 相互依存 및 互惠를 강조해 왔다. 따라서 韓國社會에서 老人들이 子女와 따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社會主義體制 導入初期 段階에서 北韓은 父母와 자식들 간의 無條件的 사랑과 尊敬을 낳은 封建的 慣習으로 指彈되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다. 또한 家族成員 모두가 賃金 勞働者化함으로써 家族成員 끼리의 相互關係는 變質되어, 家長權의 약화와 子女의 독립심은 分家라는 概念과 함께 傳統的인 代를 잇는다는 家系觀念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北韓社會에서 祭祀, 환갑, 省墓 등의 儒教的 傳統風習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교적 道德律이 그대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年 社會科學院 民俗學研究所 機關紙인 考古民俗에 의하면 孝는 美風良俗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道德教科書에서는 父母를 恭敬하지 않고 老後를 돌보지 않는 것은 背恩亡德이라고 指稱하고 있다.²⁷⁾ 老父母를 모시고 사는 어떤 남자는 그의 勞動代價로 받은 分配物과 돈을 處分함에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父母와 相議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늙은 父母에게 맡겼다가 必要할 때 쓰도록 했다고 하여, 北韓의 傳統的인 風習인 敬老

27) 이희봉, 「北韓의 家族法과 傳統家族制度」, 國土統一院, 1975, p.13.

思想의 發顯이라고 協同組合內에서 가정생활의 標本으로 紹介되었다 한다.²⁸⁾ 그러나 이같은 孝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孝가 아니라 부모가 人民과 黨의 利益을 위하여 산 경우에 適用되는 것이고 反動分子의 경우는 公開席上에서 父母를 批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⁹⁾ 워낙 資料가 不足한 現實에서 이온죽 教授의 북한소설 分析에서 나타난 父母·子女의 관계는 參考資料가 될 수 있다.³⁰⁾

父母·子女關係는 血肉·天倫의 관계로 북한 소설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父母가 자녀에 대하여 지니는 情感은, 1) 자연스러운 부모의 情과 사랑 2)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릇되면 언짢아하는 부모의 애뜻한 심정이 그려지고 있고, 3) 자식, 특히 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寬大한 過剩保護 性向이 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獻身的 사랑들이 북한소설 全般에 걸쳐 描寫되고 있다 한다. 반대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指向을 보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盲目的 사랑과 愛着이 나타나고 있고, 長成한 아들도 부모에 대한 情을 애뜻이 表現하고 있고, 부모를 어려워하고 부모 앞에서 恭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다.

이러한 資料는 아직도 北韓에 韓國 傳統的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支配이데올로기나 社會體제도 人爲的으로는 根絶시키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가족이 自律的인 경제단위로서 기능을 喪失하였기 때문에 老父母는 자녀세대의 扶養家族員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孝의 觀念은 存在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아니 오히려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老人扶養 및 保

28)이희봉, 위의 책, p.17.

29)이환구, 「北의 實相과 虛相」, 한국출판공사, 1985.

30)이온죽, 앞의 책, pp. 148-156.

護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孝를 復活시켰는지도 모른다. 이은죽 教授는 家族關係는 물론이고, 그밖의 여러 다른 人間關係, 즉 師弟間, 世代間, 직장동료간의 相互尊重, 相互扶助 關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이런 것들은 인정주의와 더불어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集團主義價値의 具體的인 反映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本 研究의 假定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 傳統家族主義의 價値의 表現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老人의 家族內 傳統的 地位變化를 살펴볼 수 있는 人爲관계로 姑婦關係를 들 수 있다. 傳統的으로 한국 가정에서는 姑婦間的 葛藤이 많이 있었으나 북한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가진 며느리가 家庭의 한 成員으로써 家庭 밖의 勞動生活에 參與하게 됨으로써 葛藤關係는 약화되고 있으며, 며느리를 심하게 다루는 경우에는 “女盟” 같은 組織에서 壓力을 넣고 비판의 對象으로 지목받게 된다고 한다. 오히려 며느리가 보다 많은 努力點을 따도록 家庭일의 많은 부분을 자연히 시어머니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姑婦間的 關係는 對立보다 협조관계로 社會的 환경에 의해 要求되고 있다 한다.³¹⁾ 또한 1970年代부터 북한에서는 家庭의 기술혁명으로 여성들이 시집은 후 시대 家門의 家風이나 家習을 배운다는 側面에서는 姑婦間的 主從關係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家族關係에 관한 資料들 중에 祖父母와 孫子女關係가 重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傳統的으로 祖父母는 年長者로 家事權을 쥐고 손자녀 양육·訓育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양육 종료에 따른 役割減少를 손자녀 양육으로 代替시키며 모든 情과 보살핌을 쏟아 왔다. 특히 直系家族

31) 이태영, 앞의 책, p.133.

内の 손자들은 家系 繼承과 死後에 祭祀를 지내줄 특수한 사람으로 그들의 役割에 대한 期待感이 크며, 가장 가까운 家族으로 認識되고 있다. 反面 손자는 祖父母를 가족의 最年長者로서 尊敬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노인과 손자녀와의 관계는 女性的 勞動力의 社會進出과 家父長的 封建制度의 崩壞로 인하여 어느정도 傳統概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戶籍制度가 없어지면서 親祖父母와 손자녀는 扶養義務 如何에 따라 가족의 成員이 되고 있다.³²⁾ 北韓 社會主義體制 導入 初期段階에서는 가족을 낳은 體制의 일부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養育을 통한 家族의 社會化 기능을 마비시켰다. 여성을 家事일에서 解放 시킨다며, 女性 노동력을 밖으로 끌어내고, 모든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集團的으로 托兒所와 幼稚園에서 社會主義 理念教育을 받게하고 있다. 김일성은 幼兒院 教育의 長點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아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서 집단적으로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 기르는 것 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합니다. 가정에서는 흔히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게 되는데 낡은 사상에 누구 보다도 더 많이 물 젖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귀엽다고 해서 그저 쓰다듬어 주기만 하지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여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탁아소·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집단주의 정신을 길러주고 공산주의적 습성을 길러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³³⁾

이로 보아서 북한의 祖母들은 社會주의 建設을 위하여 傳統的으로 맡아왔던 兒童期의 손자녀 養育役割을 喪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興味

32) 김학준외,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1986.

33) 「김일성 저적선집(4)」, 1968, pp.448-449.

롭게도 青年期에 있는 손자녀를 위하여는 傳統的 祖父母의 役割을 그대로 遂行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북한기행문과 이온죽 教授의 북한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祖·孫관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벌 자식이 더 귀엽다는 말과 같이 언제나 이렇게 어린 손녀가 자기품에 뛰어들 때면 만시름이 잊혀지고 행복에 한껏 취하게 되는……』³⁴⁾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도 그녀석에게 버릇을 가르치려고 단단히 겁어 두셨다가도 할머니가 문만 열면 음썩들 못하신다. 할머니만 끼고 도시지 않더라도 치규의 행동이 저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³⁵⁾

『할머니는 제가 시험공부할 때는 언제나 너 몸이 약해질까 하시며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옆에서 지켜보시곤 하셨어요』³⁶⁾

이런 보기들은 인정적인 관계의 존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 다음의 보기에서와 같이 손자들에게 代를 이어 직업정신을 심어 주려는 조부의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깐 우리는 철을 다루는 집안이다. 너도 크면 철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철을 다루는 사람들은 꺾어져서 동강이 날망정 휘어들지는 말아야 해”, 할아버지는 이 말을 손자가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한번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고도 안심치 않아서 다시 말해주곤 하였다.』³⁷⁾

다음 예는 한 광부 노인이 과학자 손자에게 혁명과학 전수 사명을 계승

34) 이온죽, 「앞의 책」, p.153.

35) 이온죽, 「위의 책」, p.153.

36) 양은식·김동수외, 「분단을 뛰어넘어」, 1988. pp. 43-44.

37) 이온죽, 「앞의 책」, p.154.

시키기 위하여 타이르는 장면이다.

『넌 최종만의 손자구 또 최길복의 아들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도 너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신다. 광산에 현지 지도 오실 때마다 최길복 기사장이 일을 잘 한다고 칭찬하셨단 말이야. 이런 최길복의 아들인 네가 연구사업에서 랑패하여 손을 털고 나 앉으면 되느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김일성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네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지는 거나 같은 거다. 대가 말이다.』³⁸⁾

또한 노인들은 혁명완수 성공사례를 전해주는 이들로서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내용이 1970年代에 들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以上으로 북한 노인들의 家族關係를 살펴 보았다. 북한은 초기단계에 家族法 改正으로 親族範圍를 줄이고 家族構成員 개개인의 法的 地位를 平等한 次元으로 놓았지만, 實際로 日常生活에서는 傳統的 家族關係가 殘存하고 있어서 孝道에 관한 경직된 傳統的 定義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家族構成員 간에 복종하고 존경하는 법도는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4. 北韓 老人과 일

북한 공산당은 1946年 3月 施行된 土地改革을 통하여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改造와 親日派, 反動勢力 및 地主의 清算을 實行하였고, 1958年까지 農·工·商業의 집단화로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支配體制를 構築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勞動法은 社會構成員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으로 區分해 놓

38) 이온죽, 「위의 책」, p. 139.

고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일할 權利와 기회를 保障하는 한편, 區別없는 同等 賃金制를 實施하고 있다.

停年退職制度에서는 男子는 滿 60 歲, 女子는 55 歲를 停年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本人이 願하면 停年 以後에도 일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周知할 바로는 停年退職 以後에도 再雇傭이 인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두가지 側面에서 분석이 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1956年 年金 및 노동정책이라는 소련식 정책을 導入하였다. 소련이 노동력 부족을 겪던 時期에 나온 이 政策은 일을 하고 싶은 老人들에게 계속 일자리와 最少限의 經濟的 保障을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年金 및 勞動政策은 그 惠澤이 전문직이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고 農村의 協同農場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 例로 평양의 한 病院 院長은 80이 되는 白髮이 성성한 老醫師였으며 「60 청춘에 90 환갑이므로 아직도 환갑상을 받을 날이 멀었다」고 말한다.³⁹⁾

둘째, 勞動力이 있는데도 停年退職을 하여 遊休勞動力이 되는 것은 社會主義 建設促進을 위하여 採擇된 勞動政策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60年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現地調査를 나가서 「노인들도 늙었다고 안방차지만 할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 노동을 하라」면서 「오늘 노동당 시대는 60 환갑이 아니라 90 환갑이라야 한다」고 교시를 한 이후부터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말이 유행되었고 이에 따라 60을 넘은 老人들도 거의가 勞動現場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은 북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⁴⁰⁾ 몸이 衰弱해져야 비로소 집안에 들어앉아 쉬운 일이나 하겠다는 말을

39) 양은식·김동수外, 「분단을 뛰어넘어」, 1988.

40) 서동익, 「앞의 책」, p. 243.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한 예로 김만철씨의 장모인 허문화씨는 55세에 은퇴한 후에 일시적으로 협동농장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老人들도 遊休勞動力으로 看做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주로 家內副業班, 各種會議, 各種 學習會議 등에 參與한다. 協同農場에는 여성노인들이 지도원급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北韓農村에서는 노동력부족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女盟에 加入하여 女盟에서 主權하는 外貨벌이 事業에 參與한다. 주로 버섯따기와 개가죽 말리기를 한다. 家內副業班이나 作業班에 나가지 못하는 老人들은 집에서 손자녀나 家事일을 돌보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텃밭일과 돼지 키우는 일이다. (북한 행정당국은 농촌 가구당 돼지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함) 최봉례에 의하면 농촌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서는 마당에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계란 등을 조금만 보따리로 꾸러가지고 나와서 판다고 한다.⁴¹⁾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점은 북한 농촌노인들의 지속적인 勞動力 參與이다. 이는 北韓 共產黨이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資源과 資本의 이용보다는 男女老少를 불구하고 이들의 勞動力參與를 重視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老人들은 集團生産 目標達成을 위하여 老齡임에도 불구하고 生産活動에 動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在 북한노인들이 그들의 勞動力 參與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아야 하나, 現在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資料가 없는 實情이다. 특히 現 老人世代들은 전통적 노인문화에 대한 觀念이 內面化되어 있는 이들로 두가지 相反된 價値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研究는 더욱 더 요구가 되고 있다.

41) 김만철一家 「北韓實態證言錄」, 1987.

5. 北韓老人과 社會福祉政策

北韓의 社會福祉政策은 北韓 住民들의 社會生活을 비교적 安定시키고 있기 때문에, 經濟的 威脅과 社會的 不安 및 不滿 때문에 反體制的인 要素로 發展될 여지가 적다고 한다. 왜냐하면, 北韓 共產黨은 초기단계인 1948年 9月 8日에 制定公布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7조”에 「사회 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이 노쇠, 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 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된다」고 법적 규정을 함으로써 黨이 指向하는 목적을 평등한 生活과 社會福祉向上에 強調를 두었기 때문이다.⁴²⁾ 그러나 특별히 老人과 관련된 老人福祉 프로그램이나 老人福祉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年老年金과 無依托老人을 위한 養老院이 存在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北韓住民들은 9歲부터 65歲까지 1개 이상의 團體에 義務的으로 加入하여 組織生活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全勞動者·農民에 대한 成人教育·社會教育이 半義務化되고 있어 老人교육이나 老人團體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北韓의 停年退職制度和 年老年金, 醫療保障制度和 養老院制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停年退職制度和 年老年金

北韓 停年退職制度에서 停年은 男子 滿60歲, 女子 55歲로 規定되어 있으며, 本人이 願하면 停年 以後에도 일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年老年金은 일정한 勤續 勞動年限에 따라 支拂된다. 勤續年限이 8年以

42) 「북한사회제도의 법적구조 분석」, 국토통일원, 1972.

상이 되어야 받게되며 협동농장원의 경우에는 이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한다.

年老年金の 內容은 해당자가 직장에 勤續할 당시 받은 基本賃金の 60%~70% (20年未滿 勤務者는 그 折半)의 現金과 1日 300 鈔의 食糧配給을 받는다. 年老年金 對象者라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基本 賃金과 食糧配給量을 공제당하지 않은채 1日 600 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老人들은 몸에 重病이 없는 限 現實的인 不利益 (年金對象者가 됨으로써 줄어드는 賃金과 食糧配給)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거의 65세까지는 大多數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退職 後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권고를 받고 應할 경우는 追後 年金額의 18%~20%를 더 받게 된다. 1980년부터 實施된 功勞 年金은 英雄稱號나 國기훈장 1級以上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1日 糧穀 600 鈔과 매달 補助費 60 圓을 준다. 無緣故者의 경우는 年金으로 月 30 圓, 糧穀 1日 600 鈔을 준다. 왜냐하면 붙여먹을데가 없으니까 國家 惠澤이라 하여 자식있는 사람의 두배를 주고 있다.⁴³⁾

농촌에서 年老年金은 男女 구별없이 月 16 圓30 錢의 現金과 1日 300 鈔의 食糧을 配給해 준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 노인들은 家內副業班과 作業班에 나가 일한만큼의 利益金의 일부를 받아온다. 家內副業班이나 作業班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린 노인들은 터밭일과 돼지를 키우거나 손자녀를 돌봐주며 여생을 보낸다. 以上の 資料에서 우리는 北韓의 年老年金制는 職種, 子女有無, 그리고 黨에 대한 공훈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김만철一家, 「北韓實態證言錄」, 1987.

(2) 醫療保障制度

북한의 헌법 제 48 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 치료제를 더욱 건고히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 모든 주민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⁴⁾

現在 북한의 치료기관의 組織化 樣相을 보면 中央에 (평양에) 몇개의 綜合 및 專門病院들이 있으며, 道에는 道中央病院, 市·郡엔 市·郡人民病院, 里에는 診療所, 各 産業職場에는 規模에 따라 産業病院 및 診療所들이 設置되어 있다. 無償治療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자유로이 자기가 希望하는 병원을 택할 수는 없으며 자기가 살고있는 地域의 醫療機關을 一次的으로 利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北韓의 醫療人力의 不足과 病院施設 不足 등으로 實際의 경우 철저한 治療惠澤을 받기는 힘들다. 그러나 無償이므로 住民들의 直接的인 醫療 經濟的 負擔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北韓에서는 주로 豫防醫學的 方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大氣汚染 防止, 食品 防腐劑管理, 定期診斷과 早期 綜合治療 등에 置重하고 있다 한다.

紀行文에 의하면 北韓醫療制는 예방의학적 側面이 강하여 醫師들이 隨時로 찾아와 檢診을 한다고 한다. 감기만 걸려도 의사가 와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김일성 수령님이 보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老人들은 오래 산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다.⁴⁵⁾

44) 이만기, 「북한의 실질소비생활 연구」, 국토통일원, 1984.

45) 양은식·김동수외, 「분단을 뛰어넘어」, 1988.

(3) 養老院 制度

北韓 住民들은 누구나 노동능력을 喪失하고 55歲~60歲 以上이 되면 養老院에 들어갈 수 있다는 保障이 있다.⁴⁶⁾ 養老院은 國家에서 運營하는 養老院 뿐이며 道 單位로 하나씩 있다. 농촌에서는 거의 없으며, 郡 單位로 협동농장 經營으로 運營되는 것이 간혹 있다. 入養對象으로는 男子 60歲以上 女子는 55歲 以上된 자로서 노동능력을 喪失했을 경우이나 보통 이 年齡을 훨씬 초과한다. 위에 해당하는 자가 무의무탁하며 扶養해 줄 家族이 없을 경우에 對象이 된다. 양노원 운영은 내각 보건성에서 하다가 1964年 부터는 노동성으로 移管되어 道에서는 道人民委員會 勞動局에서 養老院을 管理 運營하고 있다. 따라서 市·郡 人民委員會 勞動部에 入養申請書를 提出하면, 市·郡 人民委員會 勞動部에서는 入養對象者의 자격이 갖추어 있는지 동인민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를 거쳐 道人民委員會 노동국으로 提出하게 된다. 이곳에서 入養決定이 되면 入養通知書가 郡人民委員會에 下達되어 入養對象者에게 통지가 된다.

養老院이라 하여 아무일 없이 生活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생활에 대한 각종 회의가 있으며, 일주일에 수차례의 학습회가 組織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作業할 것을 自進 決議토록하고 개개인에게 作業量이 配當된다. 예를 들면 周邊 地方 産業工場에 必要한 실 꼬는 작업 또는 돛자리 제작, 양노원내에 있는 터발 가꾸기 등으로 노동능력 상실자를 제외하고는 생산활동을 시키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인을 위한 북한의 社會保障은 制度的으로 完

46) 「북한의 생활실태」,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1.

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그 規定들이 얼마나 實現이 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北韓 社會保障制度의 運營上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은 強力한 中央集權的 國家統治下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가지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불구폐질로 인한 노동력상실을 사회보험의사가 判定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嚴格한 기준을 要求하고 있다는 점, 둘째, 社會主義 建設 促進에 일조가 되기 위하여 社會保障 惠澤을 返還한다는 점, 셋째, 소위 反動勢力에 대한 노동의 기회를 剝奪 制限함으로써 결국 社會保障制度의 惠澤에서 遮斷하는 점과 黨 幹部에 대한 높은 年金料支拂 등은 그 適用上의 不平等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⁴⁷⁾

결국 北韓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體制의 鞏固化라는 美名下에 社會保障制度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手段的인 制度라고 解釋할 수 있다. 人民의 일상의 생활을 국가가 결정함으로써 이들이 일할 수 없을 경우의 생활에 대하여도 당연히 국가가 責任을 져야 하므로 北韓社會의 社會保障制度는 노동력의 강제적 확보의 한 수단이 됨과 아울러 老後의 老弱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不安感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도록 巧妙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7) 「北韓社會制度의 法的 構造 分析」,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972.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北韓에서 社會主義體制 導入 以前과 以後에 老人들의 地位가 어떻게 變化하였는지를 다루어 보았다. 社會主義體制가 導入되기 以前에는 傳統的 慣習으로 祖上崇拜 및 祭祀를 받들었으며 長幼有書와 孝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老人恭敬이公私를 막론하고 일반화되어 實現되고 있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北韓의 社會主義 革命은 自生的 生産力 發達에 根據한 것이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強要된 變革으로서 김일성 政權의 강력한 國家 統治理念은 모든 사람들의 日常生活을 主導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연히 과거의 한국 전통유교이념과 현재의 사회주의이념 사이에 發生되는 緊張, 葛藤, 矛盾을 해결하기 위하여 國家政策의 一環으로 노인들의 扶養 및 保護를 위한 社會的 關係와 物質的 환경을 형성해 주었다고 假定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적 사회주의가 우선으로 삼고 있는 革命課業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통적 유교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을 서로 강화시켜 사회주의체제 완성기간동안 老人들의 位相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가정을 하였다.

대체로 老人의 地位는 주어진 사회에 있어서, 주어진 時期의 家族과 經濟 制度에서 老人들이 맺고있는 社會關係에서 행해지고 있는 役割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老人의 地位를 알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곳은 가족과 직장으로, 가족, 일, 老人福祉政策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老人들이 어떻게 待遇를 받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研究對象者는 北韓 老人으로, 既存해 있는 북한 연구자료, 북한에서 발행된 公式資料, 在外僑胞들이 現地 體驗을 쓴 紀行文, 越南 귀순자들의 북한실태 증언록 등에서 老人과 관련된 資料를 拔萃하여 分析하였다. 本 研究에서 밝혀

진 바로는,

첫째, 북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社會主義 導入 初期段階에서는 傳統的 色彩를 除去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父母의 子女에 대한 養育 및 訓育役割의 弱化和 私有財産 및 相續制 廢止로 父母의 지위가 약화되었고, 적합한 扶養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6.25 以後 經濟開發政策과 김일성 主體思想 확립 및 父子世襲推進과 함께 老人世代와 젊은世代와의 관계가 相互依存的이며 相互尊重的인 形態로 나타나고 있었다. 初期에는 老人들의 活動을 沮止시켜서 家族構成員의 關係를 平等하게 하였으나 1970年代부터는 儒教的 倫理觀 強調와 함께 결국 老人들을 尊敬해 주고 있었다. 이는 김일성이 現 老人世代들을 김일성 政權을 확립시키는데 犧牲을 당한 世代였으므로 老人들의 政治的 役割, 즉 젊은世代를 社會化시키는데 必要的인 支持者로써, 補助者로서 老人을 수용하고 존경하는 方向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社會주의 혁명은 한국전통가족 이념과 敬老思想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통유교 지침에 의하여 社會화된 父母世代와 共產黨 지침에 의하여 성숙된 자녀들 間에 活氣있는 關係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社會主義 建設이 不可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통 가족관을 完全히 破壞시키지 못하였고, 그 道德基準을 認定하여 硬直된 儒教 倫理觀이 아니라 오히려 革命으로 인하여 姑婦間의 關係 등 가족구성원 相互間에 隔意없는 사랑과 존경이 조성된 側面도 있다. 社會는 統制되고 있지만 家族關係는 權威的인 것이 아니라 人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족은 아주 가까와 졌다.

셋째, 現 北韓 老人은 社會的으로 尊敬받는 位置에 있는데 그 要因으로는 1) 世代間의 相互依存을 重視하는 價値觀이 存在하고, 2) 居住地 移動의 統

制, 3) 비교적 平等한 社會保障制度, 4) 男女差別이 없는 등 비교적 公平한 賃金制度, 5) 停年退職 後의 再就業 可能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社會主義 이데올로기, 物的資源의 不足, 傳統的 價値觀이 서로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북한사회에서 老人의 待遇가 적어도 現狀態에서 退行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력한 國家役割과 社會主義的 産業社會 追究에 우리 固有의 傳統이 結合하여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社會主義體制 導入이 북한 老人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實證的인 統計分析, 深層事例研究, 現地調査 등이 要求되고 있다. 특히 생활사적 방법을 適用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理解가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社會主義體制 속에서 삶을 꾸려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同族으로서의 理解圖謀를 위하여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의 社會주의적 政治·經濟變革은 북한 老人들로 하여금 어린시절과 靑少年期를 보냈던 背景하고는 다른 狀況에서 老齡期를 보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생을 통하여 두가지 相反的인 形態의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社會主義體制 導入 以前의 생활태도와 價値觀을 가지고 現在의 社會主義制度內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現在로는 한국사회의 傳統的 가치관이 북한사회의 부분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과거와 이어주는 기능을 遂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現在의 그 변덕스러운 북한 社會주의 이념에 對抗하여 북한 속에서 한국적 경험의 持續性 내지 經驗의 單一化의 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社會體系의 理論的 考察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4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7호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